

# 이 책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 □ 수련활동의 기본철학과 방법론

### ◎ 수련활동의 기본철학

지금까지 우리는 청소년을 문제의 시각에서 그 증상을 진단하고 처방하려는 소위 원인(cause) → 결과(effect)의 환원주의적 접근으로 일관해 왔다. 물론 원인 → 결과의 정형화된 시각으로 인간현상을 밝히려는 시도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총체적인 시각이 요청되는 청소년문제에 원인 → 결과의 패러다임을 적용할 경우 그 패러다임에 내재된 오류가 명백히 드러남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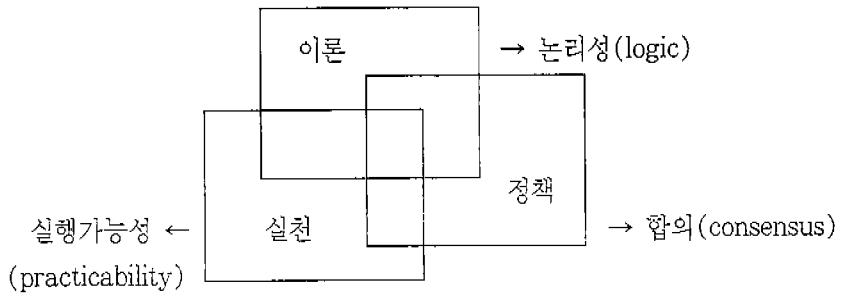
검은색 안경을 쓰면 온세상이 검게 보이는 것과 같이 청소년에 대한 이와 같은 정형화된 시각은 청소년의 삶을 왜곡시킨다. 이 패러다임으로 현상을 들여다보면, 현상을 파악하려는 주체(subject)와 파악되는 대상인 객체(object)간의 엄격한 상호분리를 전제로 인식의 과정이 시작된다. 예컨대, 청소년문제를 인식할 경우에 어른이 주체가 되고 아이들은 탐구의 객체로 분리되어 문제의 원인을 아이들에게서 찾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수련활동은 청소년문제가 본질적으로 원인 → 결과의 정형화된 시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기본가정을 갖는다. 청소년문제는 본질적으로 실천과 정책지향적이어서 이론적 논의를 중시하는 원인 → 결과의 접근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말 청소년문제는 학자(이론가)들의 전문적 논의로 해결되는 문제라기 보다는 이해 당사자(청소년, 어른, 사회)들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그 조정이 요구되는 정책지향적인 동시에 실제적인 장면에서 행동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천지향의 문제이다.

실천적 맥락에서 청소년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결을 전제하는 수련활동의 기본철학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청소년문제는 본질적으로 실천지향이다.

흔히 인간사는 [그림 1]과 같이 이론, 실천, 정책 등 세가지 문제영역으로 구



[그림 1] 세 영역과 해결의 준거

분된다. 대체로 이론의 영역은 해결의 관건이 논리적 타당성에, 실천의 영역은 실행가능성에 그리고 정책영역은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에 있다.

청소년문제가 이론적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실천과 정책적 성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소년문제가 원인 → 결과의 단순한 인과관계로는 분석해 낼 수 없는 복잡한 인간행위라는 점에서 뿐 아니라 청소년문제의 대부분이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그들의 합의도출과 즉각적인 실천이 해결의 관건이 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그렇다.

지금껏 우리 사회는 청소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민의 광범위한 합의와 즉각적인 실천으로 해결을 모색치 않고 선-이론적 논의, 후-실천의 잘못을 범해왔다. 실행 가능성과 합의가 청소년 문제해결의 관건이기 때문에 실천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청소년지도자)의 역할이 학자나 전문가의 역할보다 강조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청소년문제는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이 이해해야 한다.

실천의 사태는 이론적인 삶의 세계와는 달리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며, 독특성과 가치의 갈등을 특징으로 하는 지극히 상황지향적인 장면이다. 어떤 문제상황이 발생하면 그곳에서 즉시 대처해야 하는 일상의 삶의 사태인 것이다. 따라서 어떤 문제에 대처하는 데 유일한 해결책은 찾을 수 없다. 마치 테니스 선수가 자기 코트에 공이 넘어왔을 때 공식에 대입하여 공을 쳐 넘길 수 없는 것 처럼, 우선 넘겨 보내고 나중에 따져 보는 것과 같은 상황지향적인 것이다. 사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유일한 정답(true)을 찾는 이론

의 문제가 아니라 사려깊은 판단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실천지향의 문제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문제는 사실(facts)을 만들어 내는 예술적 행위의 삶이라는 표현이 보다 적절할 것 같다.

의미는 상황지향적이며, 상황은 주체와 객체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진다. 바로 청소년문제는 어른과 아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한편의 드라마처럼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삶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미 시작된 영화를 감상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 영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은 중요치 않은가? 이런 시각으로 아이들의 삶을 들여다 볼 때 비로소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문제의 해결은 현장 실천가들의 몫이다.**

청소년문제의 본질이 실천과 정책지향이라는 점은 바로 청소년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이 현장 실천가들의 몫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상황에 부딪혔을 때, 전문가나 학자들로부터 정답을 받아 적용할 여유가 없다. 신중한 판단과 사려깊은 행동만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는 유일한 해결책인 것이다. 실천의 상황에서 현장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최첨단 기기를 갖춘 최신행 비행기의 추락사건, 즉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보다 경제적인 운항을 추구하려는 기장의 판단에 의해 시설이 낙후한 비행장에 몇번의 착륙을 시도하다가 추락한 사건을 상정해 생각해보자.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조종의 기술이나 조종팀의 지휘 그리고 컴퓨터화된 첨단 기기들의 성능보다도 조종사가 상황에 대처하는 판단능력이 항공기 안전에 훨씬 중요한 것임을 보여준다. 조종사의 행위는 매순간마다 그가 내리는 판단에 의해 좌우되며, 또 그의 판단은 그가 처한 상황 때문에 겪는 온갖 개인적·직업적 스트레스나 걱정거리 같은 것들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상정한 추락사고는 조종사가 직업적으로 받게 되는 압력이 적어도 간접적 요인인 것은 분명하다. 제대로 기기도 갖춰지지 않은 비행장에 몇번의 착륙을 시도하다 실패했고 사고가 일어날 징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착륙을 시도했다. 만일 그가 아무런 압력을 받고 있지 않았더라면 왜 그렇게 위험스런 착륙을 시도했겠는가? 아마 첫번째 착륙 시도에서 실패한 뒤 기상 등을 고려하여 다른 공항으로 회항했어야 했을 것이다.

악천후에도 목적지에 착륙해야 한다는 압력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를 항공사가 요구하는 「경제운항」의 압력이라고 생각한다. 조종사는 이 경우에 「이윤을 위한 비행」과 「안전을 위한 비행」의 갈등적인 사태에 처하게 된다. 안전을 위해 조종사는 무리한 비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조종사의 판단과 상반되는 것을 항공사가 강하게 요구하더라도 최후의 상황판단과 행동의 수행은 실천의 사태에서 사려깊게 행동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조종사의 몫인 것이다.

청소년문제에 대처하는 현장지도자들에게도 그 실천자로서의 역할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는 조종사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사려깊은 판단과 행동이 요구되는 것이다. 청소년 지도의 문제는 어떤 정형화된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론가나 학자들이 실천의 현장지도자들에게 그 상황에 대한 유일한 해결방안을 제공해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장지도자들 또한 그것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시급한 실천의 문제인 것이다. 실천의 최전선에 있는 청소년지도자를 제외하고서 실천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지나친 과장은 아닐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청소년 지도자들은 수련활동의 의미와 그 적용에 관한 기본틀(안정)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들은 이 틀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창의성과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실천의 장면에서 수련활동을 하는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없기 때문에 수련활동을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에 적절하게 변형하고 수정하는 것은 당연히 현장지도자들의 일이 되어야만 한다. 청소년들의 문제를 다루는 일은 하나의 정답을 발견해 내는 과학적인 활동이라기 보다는 그들에게 의미있는 삶을 안내해 주거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술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이다.

## ◎ 수련활동의 방법론

흔히 수련활동을 지도하는 데에는 실습, 답사, 견학이나 봉사활동 등과 같은 구체적인 경험적 방법으로부터 강연이나 강좌 또는 토론과 같이 추상적이고 전달적인 방법까지 다양한 지도기법이 사용된다.

수련활동지도를 위해서 전성연(1983)이 제시한 청소년 교육기법의 분류모형 [그림 2]은 지도하는 활동의 목적과 여러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것을 제안해 준다.

이 모형에 의하면, 「전달-수용적 방법」은 흔히 지적인 학습을 요하는 경우나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정보를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효과적인 방법이다. 청소년 수련활동에서 보다 많이 강조되는 「참여-탐구적 방법」은 상호작용의 역동적 맥락이 중시되며 「전달-수용적 방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정의적인 특징을 갖는 「수련-체득적 방법」은 일종의 생활훈련식 방법으로 집단활동을 통해서 인간관계 기술, 리더쉽과 멤버쉽, 가치와 창조의 순종, 자치능력의 함양 등 사회적 정의적 능력확대에 중요한 것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이 모형의 사용은 한가지 기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방법을 상황에 적합하게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점이 중요하다.

|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span>추상적<br/>(지적)</span> <span>←————→</span> <span>구체적<br/>(정의적)</span> </div> |                                                                                                                                                                     |                                                                                                                                             |
|-------------------------------------------------------------------------------------------------------------------------------------------------------------------|---------------------------------------------------------------------------------------------------------------------------------------------------------------------|---------------------------------------------------------------------------------------------------------------------------------------------|
| 전달 — 수용적                                                                                                                                                          | 참여 — 탐구적                                                                                                                                                            | 수련 — 체득적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서</li> <li>• 강연</li> <li>• 강의</li> <li>• 시청각매체 이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의 · 대화</li> <li>• 토론 · 세미나</li> <li>• 회의</li> <li>• 비즈분단체미나</li> <li>• 역할연기</li> <li>• 실험 · 조사</li> <li>• 표현활동</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습</li> <li>• 답사 · 견학</li> <li>• 야영수련회</li> <li>• 봉사활동</li> <li>• 행군 · 행진</li> <li>• 훈련</li> </ul> |

[그림 2] 청소년 교육기법의 분류모형

상호작용의 인식론과 방법을 특히 강조하면서 본 프로그램은 수련활동의 일반적인 지도기법으로 다음의 10개의 형태를 제시한다.

- 강의
- 강연식 공개토론
- 시청각
- 게시 및 전시
- 토론
- 분임토의
- 역할연기

- 현지답사
- 워크숍
- 구안법

위 10개 지도기법에 대해 각각의 특징과 준비 그리고 진행절차를 살펴보자.

## ○ 강의(Lecture)

### ○ 특징 :

강의는 짧은 시간내에 많은 내용을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참여자들이 수동적으로 강의에 참여하는 약점이 있다. 강사는 참여자들이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간결한 언어 표현을 사용하고, 말의 속도와 고저를 적절히 구사하여 참여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강사는 강의 내용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참여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 ○ 사전준비 :

- 지도자는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에 알맞는 강사를 선정한다.
- 강사에게 집단의 욕구와 흥미, 시간제한 등에 대해 설명한다.

### ○ 진행절차 :

- 강사는 주제를 소개하면서 참여자들의 관심을 모은다.
- 준비된 내용의 진행순서에 따라 정해진 시간동안 주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 강의가 끝난 후 질의 응답 시간을 갖는다.
- 강사는 중요점을 강조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면서 강의를 마무리 짓는다.

## ○ 강연식 공개토론(Seminar)

### ○ 특징 :

주제나 의제에 대해 여러가지 견해를 가진 몇몇 연사들이 자기의 의견이나 준비한 내용을 발표한다. 청중은 발표자들의 발표를 듣고 난 다음 질문을 하고, 발표자는 그것에 답하는 식으로 진행시키며 토의에 청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발표자 중에서 좌장을 선정한다. 좌장은 주제를 제시하고 강사를 소개하며 논의를 명확히 해주고 청중들의 질문을 받아 토론을 주재한다.

○ 사전준비 :

- 특정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4~5명의 발표자를 선정한다.
- 발표자 중에서 사회자를 선출한다.

○ 진행절차 :

- 좌장은 참가자들에게 강연의 진행절차를 설명한다.
- 좌장은 논의 주제를 설명하고 발표자를 소개한다.
- 발표자들은 준비된 내용을 발표하고 좌장은 발표자들의 내용이 적절히 연결되도록 사이사이 발언을 한다.
- 발표가 끝나면 좌장은 청중들로부터 질문을 받는다. 질의와 응답 이후에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좌장이 논의된 주제의 핵심과 결론을 요약한다.

○ 시청각(Audio-Visual)

○ 특징 :

시청각교육은 눈이나 귀를 통해 전달되는 시청각자료(VTR, 슬라이드, 차트, 모형 등)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참여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참여자들은 언어라는 추상적 전달매체 이외에 구체적 경험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를 접함으로써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게 된다. 자료는 정보전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사용해야 한다. 단순하게 참여자의 흥미를 유발한다고 관련없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활동내용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 사전준비 :

- 필요한 정보를 선정한다.
- 참고자료를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를 선택한다.
  - 청 각 : 녹음테이프, 음반 등
  - 시 각 : 흑판, 차트, 도표, 실물 및 모형, 환등기 등
  - 시청각 : TV, VTR, 슬라이드 등
- 발표자를 미리 선정한다.
- 장비를 설치하고 자료를 미리 검토한다.

○ 진행절차 :

- 지도자는 주제와 발표자를 소개한다.
- 발표자는 시청각자료를 소개하고, 주의해서 볼 점을 지적한다.

- 발표가 끝나면 질의 응답시간을 갖는다.
- 지도자는 논의 주제를 요약하고 모임을 마무리 짓는다.

## ○ 게시 및 전시(Demonstration)

### ○ 특징 :

게시 및 전시는 참여자들의 학습욕구를 유발시키는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내용을 설명하며 요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전시장소는 참여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고, 전시내용은 참여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고 이후 활동과 관련되는 것으로 한다.

### ○ 사전준비 :

- 전시의 목적과 내용을 결정한다.
- 시각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는 실물이나 모형·그림 등의 자료를 구한다.

### ○ 진행절차 :

- 전시의 목적에 따라 자료를 전시(혹은 게시)한다.
- 참여자들에게 전시의 목적과 전시물을 볼 때 유의해야 할 점 등을 알린 후 전시물을 관람하도록 한다.
- 관람후에는 참여자들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전시나 게시에 대해 평가하도록 한다.

## ○ 토론(Debate)

### ○ 특징 :

토론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이 해결방법을 체계적으로 모색해 가는 것이다. 참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타인의 의견을 주의깊게 들으면서 협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한다. 토론에서는 참여자가 모두 참여하여 여러가지 생각과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태도를 익히게 할 수 있지만, 참여자들이 주제에 대한 사전경험과 지식이 있어야하고, 너무 인원이 많으면 원활하게 토론이 진행될 수 없고 주제에서 자주 이탈되는 단점이 있다.

### ○ 사전준비 :

- 주제를 참여자들에게 알려주고 자료를 제공한다.
- 주제 발표할 사람을 선정한다.



- 의장을 선출한다.
- 진행절차 :
  - 의장은 참여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토의목적과 진행방법 등에 관해 간단히 설명하면서 모임을 시작한다.
  - 의제를 발표하게 한다.
  - 주제에 관하여 참여자 전원이 토의에 참가하도록 유도한다.
  - 한사람이 너무 오래 이야기하거나, 반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방관자나 소외자가 없도록 참여자들을 통제한다.
  - 토의가 의제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 의견이나 제안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유도한다.
  - 문제의 처리방법, 실천방법들이 제시되었다면 이후의 실천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실천의욕을 고취시킨다.
  - 의장은 토론의 내용을 요약하고 중요점을 강조하면서 모임을 종결한다.

#### ○ 분임토의(Group Discussion)

##### ○ 특징 :

소규모의 공개토론으로 모든 구성원이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한 집단을 3~8명의 소집단을 편성하여 각 집단별로 과제를 맡겨 토론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전체집단에 발표하게 하는 방법이다. 분임토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제를 완전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짧은시간 동안 모든 참여자들이 토론에 참가하여 많은 의견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분임토의는 장난으로 흐르기 쉬우며 토의 내용이 주제에서 벗어나기 쉽고 넉넉한 토의 장소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 ○ 사전준비 :

- 다른 활동방법의 일부분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지도자는 논의될 주제를 명확히 하고 질문을 준비한다.

##### ○ 진행절차 :

- 토의 목적과 분임토의에 대해 참가자들에게 설명하며, 분임토의가 시작되면 분임토의 집단으로 모이도록 한다.
- 각 분임집단은 사회자와 서기를 선출하도록 한다.
- 토론의 주제를 소개하고 참여자들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 각 분임의 서기는 토론의 내용을 기록한다.
- 분임의 수가 적으면 모든 분임이 전체 앞에서 토의 내용을 간략히 보고하도록 하고, 그 수가 많으면 원하는 분임만 발표하도록 한다.
- 지도자는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서 모임을 마무리 짓는다.

## ○ 역할연기(Role Play)

### ○ 특징 :

역할연기 및 극화는 집단구성원들 자신이 설정된 구체적 상황이나 희곡대본에 따라 정해진 역할을 실연해 보는 것이다. 연기자는 자신이 맡은 배역이나 역할에 따라 행동하고 반응함으로써 그 배역이나 역할의 의무나 느낌을 알 수 있게 된다. 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보다 자유롭게 감정과 태도를 표현할 수 있게 되어 개방적이 되고 참여를 즐기게 된다. 극화는 기존의 희곡대본을 사용하거나 참여자들이 짠 촌극에 따라 배역을 맡고 연기를 하지만, 역할 연기는 특정 상황이 기술되면 그 상황에 맞게 연기자들이 연기를 해낸다.

### ○ 사전준비 :

- 문제에 관련된 구체적 상황을 설정하거나, 희곡 대본을 선정한다.
- (극화일 경우) 배역을 선정하고 대본을 나눠주어 대본에 따라 연습을 하도록 한다.

### ○ 진행절차 :

- 지도자는 상황과 인물에 대해 간단히 묘사한다.
- (역할연기일 경우)지도자는 설정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연기자를 선출한 다음 역할과 대사를 스스로 구성해 보도록 한다.
- 극을 상연한다.
- 참여자들은 극을 본 다음 느낀 점들을 이야기하고,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 지도자는 토론의 내용을 정리하고 연기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 ○ 관찰·현지답사(Field Trip)

### ○ 특징 :

관찰과 현지답사는 목표는 서로 다르지만 활동진행 절차는 유사하다. 이러한

활동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므로 참여자들의 참여의욕을 높여주어야 성공적으로 활동을 이끌 수 있다. 관찰과 현지답사 전에 목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방문 후에는 경험을 정리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 사전준비 :

-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
- 관찰대상 기관으로부터 방문 허가를 받는다.
- 관찰대상 기관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숙지한다.
- 관찰해야 할 점과 배경지식에 대해 알아둔다.

○ 진행절차 :

- 방문 목표에 대해 논의하고, 지도자는 관찰대상 기관에서 요구하는 절차나 주의점 등을 참여자들에게 알린다.
- 관찰이나 현지답사를 실시한다.
- 방문경험을 논의하고 방문을 마친다.

○ 워크샵(Workshop)

○ 특징 :

워크샵은 프로그램이나 특정주제(예 : 신문만들기)의 과정을 설명하기에 유용한 방법으로, 참여자들이 직접 활동을 해보도록 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하위집단별로 모여 전과정의 일부분을 맡아 수행한다. 활동이 끝나면 하위집단별로 각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한다. 워크샵은 집단이 작으므로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고 자유로운 형태의 활동이므로 참여자들의 긴장이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다.

○ 사전준비 :

- 참여자들이 참여할 다양한 주제 영역을 선택한다. 참여자들이 여러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간제한을 둔다.
- 교재와 준비물을 분배한다.
- 완성된 작품을 예시로 보여준다.

○ 진행절차 :

- 참여자들이 원하는 워크샵 내용이나 과정을 선택하도록 한다.
- 선택한 워크샵에 참여하도록 하고 시간이 허락되면 여러 워크샵에 참여해

보도록 한다. 여러 워크샷에 참여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간제한을 두고 신호에 따라 다음 워크샷으로 옮겨가도록 한다.

- 워크샷이 끝나면 전체가 모여서 경험을 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 ○ 구안법(Project Method)

##### ○ 특징 :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과제를 선택, 계획, 추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참여자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 과제 내용을 익히게 된다. 일종의 실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실습과 다른 점은 실습기간 동안 할 일을 참여자들이 자치적으로 선택하고 해결해 나간다는 점이다. 따라서 구안법에서 수행되는 과제는 참여자들이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 사전준비 :

- 과제를 선택한다. 과제의 선택은 지도자가 임의로 선택하거나,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거나, 지도자가 몇가지 과제목록을 제시하고 참여자들이 그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 ○ 진행절차 :

- 과제 수행계획을 세운다.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과제의 개요, 세부일정
  - 과제에 필요한 내용, 설비
  - 과제 수행 순서
  - 과제 진척도 기록방법
  - 평가방법과 평가시기
- 과제를 수행한다.
- 과제를 평가한다.

위에서 제시한 10개의 수련활동 방법은 지극히 일반적인 것이다. 수련활동 지도자는 이 방법들을 상황에 적절하게 변형시킬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청소년 문제는 원인→결과의 환원주의적 시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인간행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단일한 정형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인간(청소년)은 목적과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계획을 구상하고 문화를 만들며, 가치를 가지며 인간의 행위는 여러가지 계획, 가치, 목적들에 의해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다. 한마디로 인간은 자신에게 의미로운 세계 속에서 살고 있으며 그 행동이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인간 이외의 대상들과 구분이 된다. 인간에 대한 이러한 특징은 인간을 부분의 합으로써가 아니라 분리될 수 없는 통합적인 전체로 이해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실천지향의 청소년문제는 사실(facts)을 발견해 내는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의미(meaning)를 만들어 내는 예술적 행위의 삶이라는 표현이 보다 적절하다. 의미는 상황지향이며 상황은 주체와 객체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진다. 바로 청소년문제는 어른과 아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이해되어야 한다. 수련활동 속의 청소년 지도자와 청소년들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다.

## □ 우리풍속 익히기활동의 구성

우리풍속 익히기활동은 청소년들이 우리풍속을 바로 알고 흥미롭게 익힐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풍속에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재미있게 풍속을 익히고, 스스로 우리풍속의 자랑스러움을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을 일깨우는 것은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 책은 청소년들 스스로 우리풍속이 지닌 의미와 전통을 알고 친숙해 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독립적이면서도 상호연관이 있으며 순차적으로 심화되는 5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인식과정(우리풍속 알기)
2. 이해과정(우리풍속 이해하기)
3. 탐색과정(우리풍속 의미찾기)
4. 실행과정(우리풍속 지키기)
5. 평가과정(우리풍속 새모습찾기)

위에서 열거한 과정으로 구성된 활동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은 보다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각 과정은 각각의 프로그램이 독립된 순서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활동을 선택하여 실행해도 우리풍속에 대한 이해와 체험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5개의 과정들은 대체로 주제의 논리와 난이도에 따른 단계적인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 과정은 ① 활동과정 ② 활동내용 ③ 유의사항 ④ 참고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 ▷ 활동과정은 각 과정의 개관과 주요활동을 요약한 내용이다.
- ▷ 활동내용은 각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위활동들로서, 일반적으로 각 과정은 4~5개의 단위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단위활동들은 각 활동의 과정과 지도요령, 활동방법, 도움활동, 도움자료의 순으로 짜여져 있다.
- ▷ 활동방법은 각 단위활동을 실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 강의, 공개토론, 시청각, 게시 및 전시, 토론, 분임토의, 역할연기, 현지답사, 워크샷, 구안법 중에서 적합한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 ▷ 도움활동은 ‘풍통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등장시켜 실제로 어떻게 활동이 전개되는 것인가를 가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단위활동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려는 내용이다.
- ▷ 도움자료는 각 단위활동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 유의사항에는 각 과정의 진행 목적과 내용, 주의사항 등이 진술되어 있다.
- ▷ 참고에는 각 과정의 진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내용과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상상과 주변의 많은 자원들은 이 프로그램을 마음껏 응용할 수 있는 좋은 텃밭이다. 현장에서 충분히 응용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이 책을 통해 청소년들이 우리풍속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우리풍속 익히기 활동프로그램의 구성

| 과 정                     | 단 위 활 동                                                                                                                                | 활 동 내 용                                                                                       |
|-------------------------|----------------------------------------------------------------------------------------------------------------------------------------|-----------------------------------------------------------------------------------------------|
| 인식과정 :<br>우리풍속<br>알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억속의 풍속놀이</li> <li>- 우리가 좋아하는 풍속</li> <li>- 우리풍속 얼마나 아나?</li> <li>- 십간십이지란?</li> </ul>        | 우리민족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풍속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풍속이 지닌 의미와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잊혀져가고 있는 우리풍속과 친숙해진다. |
| 이해과정 :<br>우리풍속<br>이해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력이냐 양력이냐</li> <li>- 풍년점치기</li> <li>- 어촌에는 어촌의 풍속이</li> <li>- 음력달력 만들기</li> </ul>             | 우리풍속의 기초적인 태음력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파악하고, 농경문화나 어촌지역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풍속의 특징을 이해한다.                      |
| 탐색과정 :<br>우리풍속<br>의미찾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원과 같이 도는 탑돌이</li> <li>- 세시풍속따라 전국일주</li> <li>- 이 놀이는 어디서?</li> <li>- 어디 숨었나 나의 신발</li> </ul> | 우리풍속이 갖는 기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지역과 절기에 따라 풍속의 특징이 어떻게 다른지 파악한다.                                  |
| 실행과정 :<br>우리풍속<br>지키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차 영차 줄을 당기자</li> <li>- 등 위에서 꽃게싸움</li> <li>- 물위에 뜬 용알줍기</li> </ul>                           | 피상적으로 알던 풍속놀이를 직접 체험해 보고,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정서를 공감한다.                                               |
| 평가과정 :<br>우리풍속<br>새모습찾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잊혀진 풍속찾기</li> <li>- 향토축제 찾아가기</li> <li>- 환경굿 드리기</li> </ul>                                   | 현재 남아있는 풍속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찾고, 미래에는 우리풍속이 어떻게 발전해야 할 것인지를 모색한다.                                   |



## □ 풍통이의 우리풍속 익히기

### 1. 우리풍속 알기

매우 추운 날의 밤, 얼굴을 치는 바람이 뽀뽀 부는 들판입니다. 하늘에는 둥근 달이 떠 있고, 땅에는 붉은 달이 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개가요. 땅에 무슨 달이 뜨냐구요? 실은, 저와 제 친구들이 돌리는 페인트통이죠. 요새는 거의 볼 수가 없는 모습이지만, 정월대보름, 그러니까 음력 1월 15일 밤에는 흔히 들판에서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팔뚝의 반 크기만한 페인트통에 구멍을 숭숭 뚫어 그 안에 약간의 불씨가 있는 나무를 넣고 긴 철사에 매달아 빙글빙글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통안의 나무에 불이 잘 붙어요. 왜냐하면, 화학시간에 배운 것처럼 산화가 잘되기 때문이죠. 놀부 심술 중에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는 것이 있는데, 마치 통에 대고 부채질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어때요?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제 풍통이는 더 재미있는 풍속놀이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 2. 우리풍속 이해하기

풍통이는 우리풍속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궁금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풍속은 대부분 농사짓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군요. 농사일을 하지 않는 겨울이나 정월 대보름 이후에 풍속놀이가 많은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처음부터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농사가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한 점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농사가 풍년이 들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기뻐할까? 풍통이는 얼마전 시골에 놀러갔던 일이 생각납니다. 집집마다 모두 이웃이고, 어느 집을 가든지 대문이 열려있던 그 정겨움. 그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좋은 마음이 사라지는 것 같아 섭섭하기도 합니다. 그런 선조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면 어떻게 해야할까를 곰곰히 생각하던 풍통이는 조상들의 시간개념인 음력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력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 음력으로 된 달력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음력으로 된 달력을 보고 매일 쳐다보면 음력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조상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 3. 우리풍속 의미찾기

풍통이는 우리나라 각 지역에는 어떤 특색을 지닌 풍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하늘이고 같은 땅인데 왜 풍속이 달라졌을까? 곰곰히 생각하던 풍통이는 아마도 고장마다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마다 느낀 느낌이 어떻게 달랐을까요? 풍통이는 각 고장마다 색깔이 있다면 어떤 색깔일까를 곰곰히 생각해 봅니다. 노랑색, 파란색, 검정색, 아니면 빨간색? “아! 그렇구나! 같은 하늘이라도 비바람치는 바다 가까운 곳의 하늘은 회색일지도 몰라! 누런 벼가 익어가는 어느 농촌의 하늘은 황금빛 일거야. 금빛 벼 색깔이 반사되었을테니까.” 풍통이는 고장마다 다른 생활에서 느낌도 달랐을 것이고, 아마도 바라는 소원도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풍통이는 이제 시골에 내려갈 때는 할아버지께서 느끼시는 그 마을의 색깔이 무엇인지 여쭙볼 작정이예요.

### 4. 우리풍속 지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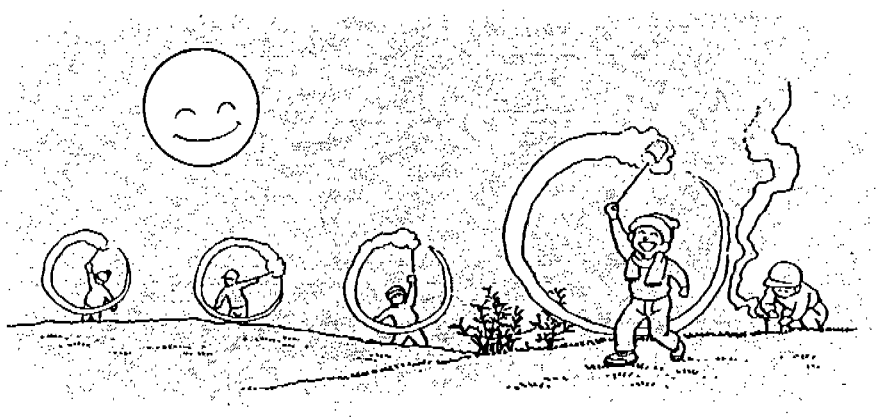
풍통이는 오랜만에 놀러온 친구들과 함께 풍속놀이를 직접 하려고 합니다. 윷놀이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해 본 줄다리기를 하기로 합니다. 줄다리기를 하면 풍통이는 운동회때 청군, 백군으로 갈라 서로 힘을 합해 힘차게 당기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줄다리기는 어느 편의 힘이 더 센가를 가리는 것보다는 풍년을 기원하는 공동체 의식에 중점을 두고 전승되어 왔다고 합니다. 보통은 마을과 마을 대항으로 동부와 서부로 편을 나누어 겨루는데, 줄다리기에 쓰이는 줄을 만드는 과정에서 놀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마을 사람들의 공동체 전체 이익을 추구하며 완전한 협동심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이 놀이를 통해 완전한 협동심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통이와 친구들은 줄을 직접 만들어 보기로 합니다. 새끼줄을 꼬기로 했는데, 시골에서 차관 병석이가 새끼 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군요. 새끼줄을 다 꼰 후에 세가닥의 줄을 이용하여 여자의 긴 머리를 따듯이 세가닥 줄꼬기를 해야 합니다. 모두 둘러 앉아서 새끼줄을 꼬며 서로의 장단점을 이야기하고 섭섭했던 일들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니 서로간의 우정도 더 쌓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당으로 나가 우리의 힘을 모아 힘껏 줄을 당길 시간입니다.

## 5. 우리풍속 새모습찾기

풍통이도 언젠가는 어른이 되고,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 때 풍통이의 손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보니 우리풍속도 바로 할아버지가 즐기셨고,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즐기셨으며, 또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결국 풍통이가 지금 즐기는 놀이도 새로운 풍속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그럴 지금 살아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어떤 놀이를 하셨을까? 풍통이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직접 찾아가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가까운 경로당에 계신 할아버지... 직접 만나보니 처음 뵈는 데도 불구하고 정말 친할아버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즐기셨던 놀이가 풍통이가 하는 놀이와 멀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제 풍통이는 우리 풍속놀이를 보다 창의적으로 계승하고 창조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열심히 우리 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 우리 풍속 알기



기억속의 풍속놀이  
우리가 좋아하는 풍속  
우리풍속 얼마나 아나?  
십간십이지란?



## 1. 활동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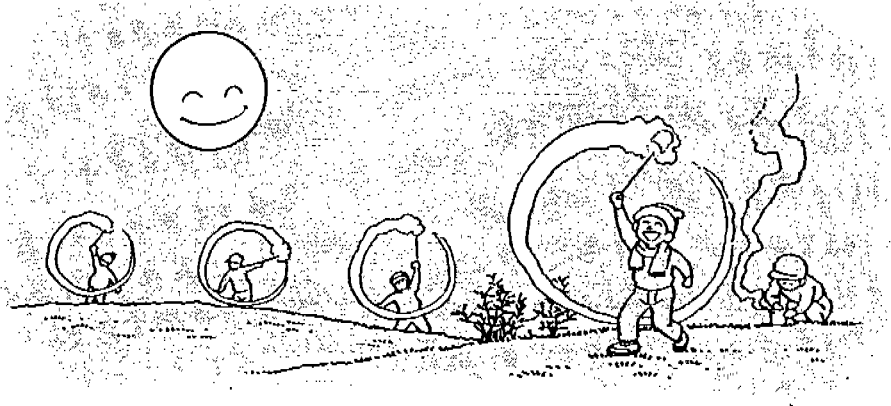
|                  |                                                                                         |                                             |                   |                          |
|------------------|-----------------------------------------------------------------------------------------|---------------------------------------------|-------------------|--------------------------|
| 개<br>요           | 전통적으로 지켜온 우리풍속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풍속이 지닌 의미와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잊혀져 가는 우리풍속과 친숙해진다 |                                             |                   |                          |
| 활<br>동<br>과<br>정 | 자신의 기억속에 있는 우리풍속의 정경을 마음에 떠올리고 그 추억을 회상한다.                                              | 우리풍속 중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풍속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이유를 찾는다. | 우리풍속의 종류와 특징을 안다. | 태음력의 기본이 되는 십간십이지를 이해한다. |

## 2. 활동내용

### 활동 1 기억속의 풍속놀이

- 활동내용
- ▷ 편안한 기분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풍속 중에서 자신이 기억하는 세시풍속의 모습을 떠올린다.
  - ▷ 그 기억이 언제, 어디서, 어느 명절에 있었던 추억인지를 회상한다.
  - ▷ 현재에도 그러한 풍속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풍속이 지닌 의미를 생각한다.

활동방법      \_\_\_\_\_ 시청각 ☒      \_\_\_\_\_ 토론 \_\_\_\_\_ 역할연기 ☒      \_\_\_\_\_ 공개토론



## 풍통이의 도움활동

매우 추운날이에요. 얼굴을 치는 바람이 켑썩 부는 들판이었죠. 하늘에는 둥근 달이 떠 있고, 땅에도 붉은 달이 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개가요. 땅에 무슨 달이 뜨냐고요? 실은 저와 제 친구들이 돌리는 페인트통이죠. 지금은 거의 볼 수 없는 모습이지만, 저의 집이 서울로 이사를 오기 전에는 정월 대보름인 음력 1월 15일 밤에 들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팔뚝의 반 크기만한 깡통에 구멍을 숭숭 뚫어 그 안에 약간의 불씨가 있는 나무를 넣고 긴 철사에 매달아 빙글빙글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통 안의 나무에 불이 잘 붙어요. 왜냐하면, 화학시간에 배운 것처럼 산화가 잘 되기 때문이죠. 놀부 심술 중에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이 있는데, 마치 통에 대고 부채질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을 보통 ‘쥐불놀이’라고 한답니다. 하늘에는 노란색의 둥근달이 떠 있고, 그 아래에는 친구들과 제가 돌리는 불통의 붉은 원이 마치 몇 개의 달이 동시에 떠 있는 풍경입니다. 그런데, 저의 기억 속에 있는 그 대보름 쥐불놀이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답니다. 멋진 불통을 만들어 친구들에게 자랑도 하고, 신나게 돌리며 한참 불이 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뚝”하는 소리와 함께 저의 불통이 저 멀리 날아가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날아가는 광경이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날아가는 방향이 벼에서 쌀을 털어낸 다음 그 가지를 말려 놓은 벼단이 쌓여 있는 곳이지 않겠어요? 그 위에 떨어진 불통은



순식간에 커다란 불기둥으로 변해버려 근처에 있던 친구들이 환호성을 질렀지만 저는 불이 번질까봐 불을 끄느라 이리저리 다니며 진땀을 흘렸답니다. 지금도 정월 대보름날에는 아파트 위에 떠 있는 둥근 달보다 더 밝고 붉은 그 깡통과, 훨훨 타던 벚단 등이 어우러진 그 풍경이 생각납니다.

## 도움자료

### □ 세시풍속의 의미

세시풍속은 계절에 맞추어 일상생활에서 관습적으로 되풀이 되는 민속을 말한다. 설날, 상원, 단오, 추석과 같은 명절이 되면 오랜 관습에 따라 새옷으로 단장하고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조상과 제신에게 제사하는 등 여러가지 행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행사는 오랜 생활문화를 이루고 있으며 매년 반복되는 관습이어서 세시풍속이라 한다.

세시풍속이 생활에 정착된 시기는 일정한 것이 아니겠으나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었거나 필요에 의해서거나 또는 당위에 의해서 관습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자연환경과 같은 역사 속에서 생업을 같이하고 동일한 언어를 쓰고 살아오는 인간의 생활습관이 동질성을 띠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즉, 세시풍속은 생활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으므로 계절적으로 반복되는 생활 그 자체가 세시풍속이다. 생활에 있어 한 번 또는 몇 번 채택되었다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고 사라진 것은 세시풍속이라 할 수 없다.

세시풍속은 넓은 지역에 걸쳐 향토문화현상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민족이나 국민을 단위로 나타나는 생활현상이다. 이렇게 대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세시풍속이 그만큼 공감에 의해서 채택되고 토착화해서 전파되고 계승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한번 토착화되면 생활방식이나 의식에 큰 변화가 없는 한은 오래 지속되기 마련이다. 넓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반복되는 생활관습일 때에 그 세시풍속은 확고한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자료 : 임동권, 1989.

## 활동 2 우리가 좋아하는 풍속

### 활동내용

- ▷ 자신이 좋아하는 풍속의 이름을 카드에 써서 모은다.
- ▷ 같은 풍속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 그 풍속을 좋아하게 된 이유와 놀이에 대한 추억 등을 정리한다.
- ▷ 각 모둠별로 정리한 풍속에 대해 발표한다.

### 활동방법

\_\_\_\_ 역할연기 ☒ 토론 ☒ 분임토의 \_\_\_\_ 강의 \_\_\_\_ 현지답사

### 풍통이의 도움활동

풍통이는 뭐니뭐니해도 추석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추석’을 카드에 적었죠. 옆에 있던 용수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저에게 창포로 머리감는 날이 언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풍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저는 자신있게 ‘단오날’이라고 가르쳐 주었죠. 사실은 그날이 우리 아버지 생신이거든요. 친구들이 적어낸 풍속이 모두 모이고 하나하나 정리를 하니, 제일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이 설날, 그 다음이 추석, 단오, 대보름 등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홍선이는 들어보지도 못한 ‘태종우’뿔, 종호는 ‘한식일’을 내어 친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다섯 개의 모둠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추석을 적어낸 친구인 선모는 뭐니뭐니 해도 과일과 과자같은 먹을 것이 많은 날이 최고라며 추석을 찬양했고, 기수는 고향에도 가고 어른들께도 인사드리는 것이 우리의 좋은 미풍양속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말했죠. 우리 모둠은 추석이 지닌 의미와 좋은 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정리하여 기수가 발표를 했습니다. 설날을 가장 좋다고 주장한 모둠에서는 현수가 대표로 나와 새해의 첫날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고, 가장 많은 놀이가 있다고 주장했죠. 그런데 홍선이는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태종우’와 관련된 전설을 말하며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을 강조했고, 종호는 한식일과 관련된 전설의 교훈을 설명했습니다. 모두들 가장 많이 모인 설날모둠이 이기리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풍속은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의미있다는 생각으로 무승부로 결론을



내리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 도움자료

#### □ 태종우

음력 5월은 하지절후(夏至節候)이다. 전에는 하지(夏至) 전 3일과 하지 후 3일이 모심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 하였다. 이 시기를 놓치면 늦모로 들어가서 적기를 잃게 된다. 또 이때쯤이면 찰레꽃이 한창 만발할 때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대체로 이 무렵이면 비가 안와서 가뭄이 드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찰레꽃가뭄’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이다. 이 고비가 대체로 음력 5월 10일쯤이다.

조선조 제3대 태종은 재위 17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태종이 병상에 누워계신 그 해는 몹시 가뭄였다. 병상에 누워서 가뭄을 걱정하던 태종이 5월 10일에 승하(昇遐)하면서 “내가 죽은 뒤 상제(上帝)께 청하여 비를 내리게 하리라”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태종이 승하한 뒤에 곧바로 소나기가 내려 가뭄을 면하였다. 그 뒤에도 5월 10일이면 날이 흐리고 비가 내린다 하여 이날 내리는 비를 태종우라 한다.

### 활동 3 우리풍속 얼마나 아나?

#### 활동내용

- ▷ 세시풍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강의한다.
- ▷ 두 개의 모둠으로 나누어 마주보고, 대표자만 자리를 바꿔 앉은 다음 대표에게 풍속놀이의 이름이 적힌 카드를 제시한다.
- ▷ 대표자가 풍속을 설명하고, 일정한 시간 내에 많이 맞추는 모듬이 이긴다.
- ▷ 게임이 끝나고 나면 게임에서 나온 풍속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 활동방법

\_\_\_\_\_ 워크샷 \_\_\_\_\_ 구안법 ☒ 강의 ☒ 게시 및 전시

#### 풍통이의 도움활동

바람부는대로 비오듯 낙엽이 떨어지니 이름하여 ‘추풍낙엽’입니다. 곡식은 누렇게 익어 고개를 숙이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뒤에 있던 홍선이가 강의는 안듣고 무슨 소리를 중얼거리는냐고 저를 꼭 찌릅니다. 세시풍속에는 기껏해야 설날, 추석, 단오 정도 있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많은데요? 정월에는 설날, 작은보름, 대보름, 입춘이 있고, 이월에는 중화절, 경칩, 춘분이 있으며, 삼월에는 삼짇날, 곡우, 청명… 등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데 어떻게 다 외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구나 그 날마다 나름대로의 놀이와 먹거리가 다 있는데 말이예요. 이제 두 모듬로 나누어서 풍속맞추기 게임을 합니다. 저의 모듬에서는 기수가 대표로 나섰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지, 기수가 머리를 긁적긁적하더니 어물어물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이 ‘통과’이지 않겠어요? 한참 긴장하던 우리모듬은 허탈했지만, 계속해서 기수는 “봄이 시작되는 절기”라고 말했고, 저는 ‘춘분’을 외침으로써 맞춥니다. 그 다음에는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깬다는 ‘경칩’, 찬 음식을 먹는날인 ‘한식’ 등이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농촌에서 못자리를 마련한다는 ‘곡우’와 목욕을 하는 음력 6월 15일인 ‘유두’와 같이 어려운 문제는 풀지 못했습니다. 겨우 다섯 개를 맞추는 동안 시간



을 모두 소비해, 7개를 맞춘 상대모듬을 가마에 태우는데, 아니 글썄 제가 만든 가마에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기로 유명한 상우가 타지 않겠어요?

#### 도움자료

#### ☐ 계절을 따라서 살펴본 우리풍속

##### ◎ 봄

음력 1월인 정월에서 3월까지 3개월을 ‘춘절’로 구분한다. 새해의 첫출발이기 때문에 조상의 사당과 묘에 인사를 드리고 어른께 세배하며 복과 풍년을 빌고, 동신제를 지내며 여러가지 놀이가 행해진다. 정초에서 봄에 이르는 사이의 여성놀이에는 널뛰기, 뚝다리 놀이가 있고 남성의 놀이에는 연날리기, 줄다리기, 차전놀이, 고싸움, 탈춤 등이 있으며 남녀가 공유하는 것에는 윷놀이, 종경도놀이가 있다.

##### ◎ 여름

음력 4, 5, 6월인 여름은 농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바쁠 때이다. 일이 바쁘다보면 한가한 일에 마음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세시풍속의 행사도 줄어든다. 그러나 여름은 건강에 유의해야 할 때이다. 연초에 기복을 통해서 악귀, 역신을 예방하고 물리쳤다고 하지만 일기가 불순하고 더워서 허약해지고 식욕이 줄고 질병에 걸리

기 쉬운 때다. 전염병이 유행되고 강렬한 태양열에 시달려 일하다 지쳐 병들기 쉬운 것도 여름이다. 그래서 세시풍속에는 하절건강과 관계되는 관습이 전해지고 있다.

### ◎ 가을

음력 7, 8, 9월인 가을에는 농경작업을 마치고 추수를 하는 때이고 추석명절을 계기로 해서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는 추원보본의 행사가 있다. 수확기를 맞이하는 농촌에서는 농민을 위로하고 8월 추석날의 만월을 즐기는 민속놀이가 있었다. 풍작을 앞두고 인심은 후하고 새쌀로 만든 떡과 술을 이웃과 나누어 먹는 관습도 있다.

### ◎ 겨울

음력 10, 11, 12월은 동절기로서 농경민족으로서 가장 한가한 시기이다. 추수도 끝나고 평안하게 3동을 지내는 계절인 겨울에는 월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김장을 담그고 땀감으로 장작이나 나무짐을 해다가 쌓아두며 풍작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조용히 세모를 보내게 된다.

## □ 곡우와 유두

### ◎ 곡우

24절후의 하나인 곡우는 대개 3월에 들어 있다. 곡우 무렵이면 농가에선 못자리를 하기 위해 범씨를 담근다. 범씨를 담아 둔 가마니는 솔가지로 덮어 두는데, 밖에 나갔다가 상가(喪家)에 들렀거나, 부정(不淨)한 일을 당했거나, 부정한 것을 본 사람은 집 앞에서 불을 놓아 악귀(惡鬼)를 몰아내거나 소금을 뿌린 다음에 집안에 들어오고, 들어와서도 범씨를 보지 않는다. 만일에 부정한 사람이 범씨를 보게 되면 싹이 잘 트지 않고 따라서 농사를 망치게 된다고 한다.

### ◎ 유두

음력 6월 16일을 ‘유두일(流頭日)’이라 한다. 유두날쯤이면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릴 시기이다. 그래서 이날은 맑은 냇물을 찾아서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으며 즐겁게 논다. 그 까닭은 동방이 청(靑)이

요, 양기가 왕성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불길(不吉)한 것을 쫓고 무사하게 여름을 보낸다고 한다.

또 이날은 햇밀가루로 국수와 떡을 마련하고 새로 익은 참외, 수박으로 신위(神位)나 토주(土主)에게 유두차례(流頭茶禮)를 지내고 사람들은 나중에 먹는다. 이것을 유두천신(流頭薦新)이라고 한다. 이것은 조상숭배와 추원보본(追遠報本)의 아름다운 풍속이다. 또 이날은 밀전병, 밀떡 등 밀가루 음식을 많이 만들어 먹는다. 그리고 민어국을 끓여 먹기도 한다.

이날 여인들의 ‘물맞이’는 동네 근처의 한적한 곳에 흰 포장의 차일막을 치고는 머리를 감고 몸에 물을 묻히면서 하루를 지냈다. 이렇게 흐르는 물에 몸을 씻는 것은 심신을 물에 담가 더러움을 떨쳐버리려는 의도도 함께 있다고 하겠다.

유두일에 선비들은 유두천신의 예가 끝나면 술과 안주를 장만하여 계곡이나 물가에 있는 정자를 찾아가 풍월을 읊조리며 하루를 즐기는 데, 이를 유두연(流頭宴)이라 한다.

## 활동 4 십간십이지란?

### 활동내용

- ▷ 십간십이지의 의미를 설명한다.
- ▷ 십간을 1-10으로 표시하여 60년의 이름을 붙인 후, 모듬별로 연도의 음력이름을 찾고 그 이름에 해당하는 동물을 안다.
- ▷ 사회자가 연도를 말하면 그 해에 해당하는 동물의 이름을 맞추는 게임을 한다.

### 활동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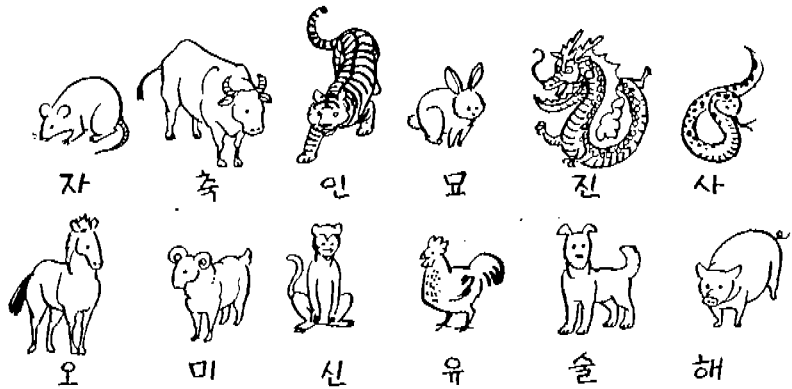
\_\_\_ 워크샷 \_\_\_ 토론 ☒ 강의 ☒ 구안법 \_\_\_ 현지답사

### 풍통이의 도움활동

우리가 지켜온 풍속은 절기를 따르는데, 이 절기는 음력으로 계산합니다. 음력으로 올해가 무슨 해인지 풍통이가 먼저 설명을 해드

리겠습니다. 올해인 1995년은 올해년입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할까요? 우리 때에는 12개가 있는 것은 아시죠?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가 바로 그것인데, 자는 쥐, 축은 소, 인은 호랑이, 묘는 토끼, 진은 용, 사는 뱀, 오는 말, 미는 양, 신은 원숭이, 유는 닭, 술은 개, 해는 돼지입니다. 그런데 각 연도의 이름을 붙일 때는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인 십간과 12개의 띠를 짝을 지어 만듭니다. 십간(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을 그냥 읽으면 어려우니까 1-10으로 표시해 보죠. 그 뒤에 12지(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를 차례대로 붙입니다.

즉, 가로를 따라 1에서 10이 반복되고 십이지 띠 이름은 왼쪽 첫 칸에서 오른쪽으로 차례대로 써 넣으면 됩니다. 이 표를 자세히 보면 가로 한줄이 10년씩인데, 1과 짝이 되는 것을 세로로 보면, 자(쥐띠)에서 거꾸로 2칸씩 옮겨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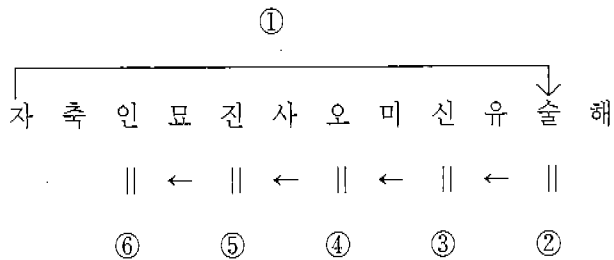




잘 모르시겠다구요? 그럼 아래 그림을 보세요.

|     | 1(갑) | 2(을) | 3(병) | 4(정) | 5(무) | 6(기) | 7(경) | 8(신) | 9(임) | 10(계) |
|-----|------|------|------|------|------|------|------|------|------|-------|
| (가) | 자⇒   | 축⇒   | 인⇒   | 묘⇒   | 진⇒   | 사⇒   | 오⇒   | 미⇒   | 신⇒   | 유     |
| (나) | 술⇒   | 해⇒   | 자⇒   | 축⇒   | 인⇒   | 묘⇒   |      |      |      |       |
| (다) | 신⇒   | 유⇒   |      |      |      |      |      |      |      |       |
| (라) | 오⇒   | 미⇒   |      |      |      |      |      |      |      |       |
| (마) | 진⇒   | 사⇒   |      |      |      |      |      |      |      |       |
| (사) | 인⇒   | 묘⇒   |      |      |      |      |      |      |      |       |

첫째줄 1은 자와 짝을 짓고, 두번째칸의 1은 자에서 꺼꾸로 두 칸을 가면 술이 됩니다. 술 다음에는 신이 되겠죠. 다른 줄도 마찬가지로요. 1-자에서 1-술로 갈 때 10년이니까 처음 갑자년에서 다시 갑자년으로 돌아올 때까지 60년이 되죠. 그래서 ‘갑이 돌아온다’는 회갑이 60년이 되는가 봐요. 이걸 아신다구요? 그럼 빈칸을 다 채워보세요.



그러면 연도를 계산해 볼까요. 연도를 계산할 때는 먼저 알고 있는 연도의 음력 이름을 제시한 후 세로줄 아래로 내려갈 때는 10년을 더하고 위로 올라가면 10년을 빼면 됩니다. 즉 1995년이 을해년 즉 2-해년이니까 1985년은 2-축년 즉 을축년이 됩니다.

1995년이 단기 4328년이고 을해년인데 단기 1년인 2333년은 무슨 해일까하고 생각해 봅니다. 음력은 60년마다 같은 해가 돌아오기 때문에 60의 배수는 아무리 더하고 빼도 해이름에는 상관이 없

습니다. 4328년을 60으로 나누면 8이 남습니다. 자 이 8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해년에서 8칸 앞으로 가면 되지요. 즉, 올해년의 8년전 해와 같은 해이름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1-술, 10-유, 9- , 8- , 7- , 6- , 5- , 4-묘년. 정묘년입니다. 단군할아버지가 처음 내려오신 해가 정묘년입니다. 그리고 보니 풍통이하고 단군할아버지는 같은 띠가 됩니다. 참으로 중요한 인연입니다.

이제 게임을 시작합니다. 1945년! 1995년에서 60을 빼면 1935년이 올해년입니다. 여기서 열칸을 내려가면... 2-유년. 즉 을유년이 군요. 유는 닭. 재빠르게 닭을 맞춥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이기고 상대방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절하자 우리 모두는 “그래 늘 건강하거라”고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 도움자료

### □ 십간(十干)의 의미

#### ○ 甲(갑)

‘갑(甲)은 만물이 부갑(符甲)을 터뜨리고 나오는 것’이고, 부(符)는 부(孚)로 발음이 같으므로 달걀의 껍질인 것이다. 만물이 발생해 오는 열매의 껍질을 쓰고 있는 상태를 「처음」으로 생각해서 맨 처음에 내놓은 것이다.

#### ○ 乙(을)

만물이 생기어 알력이는 것을 말한다고 있다. 알력인다는 것은 싹이 트기 시작하여 아직 굴곡해서 펴지 못하고 얹혀 있는 모양을 형용하고 있다. 그 글자 자체에 구부러진 모양이 보인다.

#### ○ 丙(병)

양(陽)의 길이 현저하게 밝은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석명(釋名)」이라는 책에 따르면 병(丙)은 병(炳)이어서, 만물이 생기어 밝고 확실해 지는 것이고, 싹트기 시작한 싹이 잠깐 보기에 그렇다고 인정될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 ○ 丁(정)

만물의 정장(丁壯)한 것을 말한다고 있고, 사람이 20·30세경을 정

장이라 하는 것처럼 짝이 자라서 이미 튼튼하게 된 것을 나타낸다.

○ 戊(무)

무(戊)와 같아서 모두 무성한 것으로, 짝이 생장해서 더욱 무성해 가는 것을 나타낸다.

○ 己(기)

기(紀)와 같으므로, 모두 정해진 형상으로 되고, 정연히 보아 분별할 수 있는 상태를 표시한다.

○ 庚(경)

경(更)과 같이 물건을 단단히 뭉친다는 의미를 가지며, 음기가 만물을 뭉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새싹, 무성한 잎으로 신장(伸張)한 것이 기후가 가을로 향하고, 비나 바람이나 흐림 등의 냉기로 죄어 경화(硬化)하는 상태를 표시한다.

○ 辛(신)

신(新)과 같으므로, 물건이 물건으로서 처음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모두 그 속이 차고 성숙해 오는 것을 표시한다. ‘맵다’라는 맛에 부회(附會)한 것이다.

○ 壬(임)

임(任)과 같으므로, 임(妊)으로도 통하며 하물(荷物)을 짊어지는 것이다. 양기(陽氣)가 작동하여 만물을 밑에 임양(任養)하는 것을 말한다 하며, 임양한다는 것은 짊어지고 기른다는 것으로, 여름이 지나면 열매가 맺고, 다음의 맹아(萌兒)를 갖는데 이르는 상태를 상징하는 말이다.

○ 癸(계)

규(揆)와 같으므로, 계산하는 것 즉 내부에 잉태하여 안고 있는 맹아의 형상이 갖추어져 약간 그 길이를 헤아릴 정도가 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만물을 규탁(揆度)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 십이지(十二支)의 의미

○ 子(자)

자(玆)로, 자(滋)와 통하여 ‘무성하다’에서 짝이 토기 시작한다는

뜻으로 일양내복(一陽來復)해서 싹트려고 하는 만물의 종자라는 것이다.

○ 丑(축)

뉴(紐)로, 양기가 아직 충분히 닿지 않으므로 추위에 견디어 종자의 속에서 싹이 끈과 같이 감기어 나와지는 현상이다.

○ 寅(인)

만물이 움직이는 것, 만물이 겹질 속에서 발생을 시작하여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나타낸다. 인(寅)은 연(演)과 같이 ‘펼치는’ 것이다. 곧 싹트려고 뻗기 시작하는 것이다.

○ 卯(묘)

무성한 모양이라고 하고, ‘묘(茆)’와 통하며, 흙을 쓰고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것이다.

○ 辰(진)

진(振)으로 움직이는 뜻이고, 만물이 생장하여 활동을 더해가는 모양이다. 진(震)에도 통한다.

○ 巳(사)

음은 ‘사’지만, 이것과 이(巳)와 고대에는 같은 음으로 쓰였다는 것으로 ‘생기어 이미 정해지다’라는 것이다. 싹이 터서 이미 만물이 그 형상을 이루고 번무(繁茂)의 최성기에 들어간 것을 표시한다.

○ 午(오)

오(忤)로 만물의 생장이 여기까지 와서 양기가 과성(過盛)하여 서늘한 계절이 찾아오기 시작하니 행지(行止)가 와서 만물에도 그 변화가 생기는 상태이다.

○ 未(미)

미(味)로 통하며, 생장한 것에 자미(滋味)가 생긴 형상으로 취해야 할 것이다.

○ 申(신)

신(呻)으로, 가을이 되어 만물이 쇠퇴(衰退)하고 굳어져가는 것이다.

○ 酉(유)

포(飽)의 뜻이라고 하지만 다른 제서에서 각각 다르게 설명한다. ‘수렴(收斂)’ ‘취(就)’로 보아 앞의 신(申)에 이어 쇠퇴하고 성숙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좋다고 생각한다.

○ 戌(술)

멸(滅)이라는 뜻은 무리고 「사기」에 쓰여 있는 ‘술삭(戌削)’ 등의 예에 의하여 ‘짜르다’의 뜻으로 취하고, 만물이 산락(散落)하여 고쇠(枯衰)하는 가지로부터 잘라버린다고 하는 것이 좋다.

○ 亥(해)

겨울이 되어 초목이 조락(凋落)한 뒤 맹아(萌芽)가 밑에 폐장(閉藏)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물건의 핵심으로 보아도 지장이 없다.

### 3. 유의사항

- ◎ 우리풍속 알기과정은 지금까지 우리민족이 지켜온 다양한 풍속에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우리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 ◎ 음력은 날씨나 나이를 말할 때 군더더기 정도로 생각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농사문화를 토대로 한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임을 이해한다.
- ◎ 양력은 1년에서 무한에 이르기까지 일직선적인 형태를 나타냄에 비해 음력은 60년을 주기로 순환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이러한 형태가 직선적 사고와 순환적 사고를 근거로 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 문화에 배어있는 점을 알 수 있도록 유의한다.

## 4. 참고

### □ 놀이의 종류

#### ◎ 머리카락 사르기

몸 전체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옛날에는 머리를 빗을 때, 자연히 빠지는 머리를 1년 동안 모아 두었다가 설날 저녁에 불에 태웠다. 옛날 사람들이 머리를 모았다가 설날에 태우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전염병을 막는다는 두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 ◎ 달불이

일년 12달 중에서 어느 달이 가뭄이 돌고 어느 달에 비가 많이 오는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달불이’를 한다. 달불이는 수숫대를 찌개고 양쪽 수숫대 속을 파낸 다음 그 안에 콩 12개를 나란히 박고 수숫대 두쪽이 착 달라붙도록 실로 동여매고 물속에 넣어 놓는다. 그리고 상원일에 꺼내어 실을 풀어 보면 콩이 물에 붙어 있는데, 몇 번째 콩이 붙어 있는지를 관찰하여 많이 붙어 있는 달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한다.

#### ◎ 복토 흙치기

정월 14일인 작음 보름날 저녁에 가난한 사람이 부잣집에 남몰래 들어가 마당이나 뜰의 흙을 파서 자기집의 부뚜막에 바르면 부잣집의 복이 모두 전해와서 잘살게 된다고 한다. 이것을 ‘복토 흙치기’라고 한다. 흙에는 터줏신이 있어서 그 덕택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잘살고 있으니, 그 흙을 옮겨옴으로써 자기도 잘살아 보겠다는 생각에서 연유한 것이다. 그래서, 이날 밤에 부잣집에서는 흙을 도둑맞지 않으려고 마당에 불을 밝혀두기도 하고 심한 집에서는 머슴을 시켜서 밤새도록 마당을 지키게도 하였다.

#### ◎ 부럼깨기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이찍 일어나 밤, 호두, 잣, 은행 따위를 깨무

는데, 이것을 ‘부름’이라고 한다. 대개 자기의 나이 수대로 깨물어야 한다. 이때 여러 번 깨물지 말고 단번에 깨야 좋다고 한다. 첫번째 것은 마당에 버리기도 하는데, 깨물 때에 “일년동안 무시하고 태평하며, 단사가 뜻대로 되고 부스럼이 나지 말아라”라고 빈다.

#### ◎ 더위팔기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더위를 파는 것을 ‘더위팔기’라고 한다. 될 수 있으면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이웃 친구를 찾아가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 친구가 왜 그러느냐고 대답하면, “내 더위 사 가라”고 말한다. 그러면 더위를 그 친구에게 판 것이 된다. 더위를 판 사람은 여름동안 더위를 먹지 않으며, 그 대신 몇 모르고 대답한 사람은 두 사람 몫의 더위를 먹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대보름날 아침에는 친구가 이름을 불러도 냉큼 대답하지 않고 때로는 미리 “내 더위 사 가라”고 맞대답하여 더위를 팔려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더위를 먹게 하였다고 한다.

#### ◎ 농기세배

보름날에 부락단위로 각각 농기를 선두로 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여 순서에 따라 형제를 정하고 아우 부락이 형 부락의 농기에 절을 하는 풍속이 있었다. 이것을 ‘농기세배’ 또는 ‘기세배’라고 한다. 농기세배를 하는 장소는 만형 부락의 넓은 마당이 되는데, 정월 초사흘 날인 작은 보름까지 마을 농부들은 농악을 치면서 집집마다 쌀과 돈을 거두어 들여 경비를 장만하고 14일 밤이 되면 마을의 당산에 가서 농기에 대한 제사를 지낸다.

#### ◎ 해충쫓기

노래기는 농촌의 초가의 지붕에서 흔히 나오는 해충으로 심한 악취를 풍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몹시 싫어하는 것이다. 노래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향낭각시 속거천리(香娘闍氏 速去千里)’라는 부적을 써서 서까래뿐만 아니라 방의 벽에도 붙이는데, 이는 ‘노래기야 빨리 천리 밖으로 달아나거라’라는 뜻이다. 이 부적은 대개 정월 대보름에 써서 붙인다.

#### ◎ 청참

설날 새벽에 거리에 나가서 일정한 방향 없이 돌아다니다가 처음

듣는 짐승의 소리로 그 해 일년의 운수를 점치는 것을 ‘청참’이라고 한다. 짐승의 소리 중에 까치소리를 들으면 풍년이 들거나 행운이 오며, 다른 새 소리를 들으면 흉년이 들고 불행이 온다고 한다.

#### ◎ 콩볶기

각 가정에서는 중화절날 콩을 볶는다. 솥에 불을 지피고 콩을 넣은 뒤, 주걱으로 타지 않게 젓는데, 볶은 콩은 식구들이 나누어 먹는다. 콩을 볶을 때 “달달 볶아라, 새알 볶아라, 쥐알 볶아라, 콩 볶아라”하고 외우면, 그 해에는 새와 쥐가 없어서 곡식을 축내는 일이 없어진다고 한다.

#### ◎ 줌생이보기

음력 2월 6일 저녁에 줌생이 별을 보고 1년의 점을 친다. 줌생이 별은 묘성(昴星)을 가리키는데, 여러 개의 작은 별들이 모여서 페룰 이론 별무리를 말한다. 줌생이로 점을 치는 것을 ‘줌생이 본다’고 한다. 달과 줌생이가 나란히 가거나 또는 조금 앞서 있으면 풍년이 들고, 그와 반대로 달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흉년이 들 징조라고 한다. 또한 줌생이의 빛깔이 너무 붉으면 가뭄이 심하고 줌생이가 물을 먹은 듯이 약간 투명하면 비가 많이 와서 곡식이 잘된다고 한다.

#### ◎ 풀놀이

봄이 되면 들에는 여러가지 풀들이 돋아나고, 나뭇가지에는 푸르름이 오른다. 시골의 소년과 소녀들은 이 풀과 나뭇가지로 장난감을 만들어 가지고 놀았다. 소년들은 돌과 냇가에 물이 잘 오른 버드나무가지를 꺾어 손으로 껌질을 비틀어 속을 빼버리고 호드기를 만들기도 하고 질경이풀의 속이나 진달래꽃 수술을 서로 엮어서 당겨 누구의 것이 더 센가를 가려 승부를 겨루기도 하고, 여러가지 풀꽃과 풀잎으로 떡이며 찬을 만들어 소꿉장난을 하였다.

#### ◎ 꿩알줍기

3월이면 꿩이 이른 새끼를 까기 위해 알을 낳는다. 오뉴월에 까는 것은 늦새끼라고 한다. 속담에 ‘꿩 먹고 알 먹고’라는 말이 있는 것과 같이 꿩의 알을 주으면 길하다고 해서 봄에 산이나 보리밭으로 꿩의 알을 주으러 간다. 꿩은 영리한 짐승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늘닭’이라고 하여 하늘님의 사자로 여기기도 했다. 따라서 꿩을 길조로 여기고 농기 꼭대기에 꿩의 깃털을 꽂는다.

#### ◎ 낙화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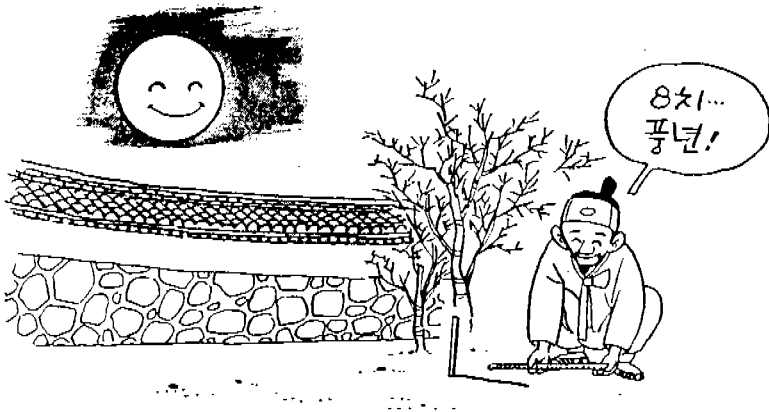
낙화놀이는 ‘줄불놀이’라고도 하는데, 석가모니 탄신일인 초파일날 절에서 흔히 하는 불꽃놀이의 일종이다. 참나무 껍질을 벗겨서 말리어 태워서 가루를 내어 소금을 섞는 수도 있고, 뽕나무 뿌리의 숯을 가루로 만들어 섞는 수도 있고, 사금파리를 가루로 만들어서 섞는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타기도 잘하고 불꽃도 연달아 부지직 소리를 내며 잘 탄다.

#### ◎ 거북놀이

수숫잎을 따서 한가운데 모습을 지어 길게 엮으면 마치 지네발 모양을 하게 된다. 이것을 몇개 이어서 마치 명석처럼 만들고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꺼불거리며 걸어가면 마치 거북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거북의 임자가 뒤에 서서 “거북아 거북아 만세, 거북아 잘도 먹고 잘도 놀아라”하고 외치면 풍물도 여기에 맞추어 농악을 연주한다. 그리고 큰 마당을 가진 집에 가서 흥겹게 놀며 갓은 덕담으로 그 집을 추켜세우다가, 거북이가 쓰러지면 거북이가 배가 고파 쓰러졌으니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소리치면 그 집에서는 미리 준비한 술과 떡 등을 제공한다.



# 우리 풍속 이해하기



음력이나 양력이나  
풍년짐치기  
어촌에는 어촌의 풍속이  
음력달력 만들기



## 1. 활동과정

|                  |                                                                                 |                                      |                              |                              |
|------------------|---------------------------------------------------------------------------------|--------------------------------------|------------------------------|------------------------------|
| 개<br>요           | 우리 세시풍속의 바탕이 되는 태음력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파악하고 농경문화와 어촌지역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우리 풍속의 특성을 이해한다. |                                      |                              |                              |
| 활<br>동<br>과<br>정 | 태음력의 특징을 알고, 우리사회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 우리의 세시풍속 놀이가 농경문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이해한다. | 세시풍속놀이 중 에서 어촌과 관계있는 것을 찾는다. | 일상생활에서 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례를 찾는다. |

## 2. 활동내용

### 활 동 1    음력이나 양력이나

#### 활동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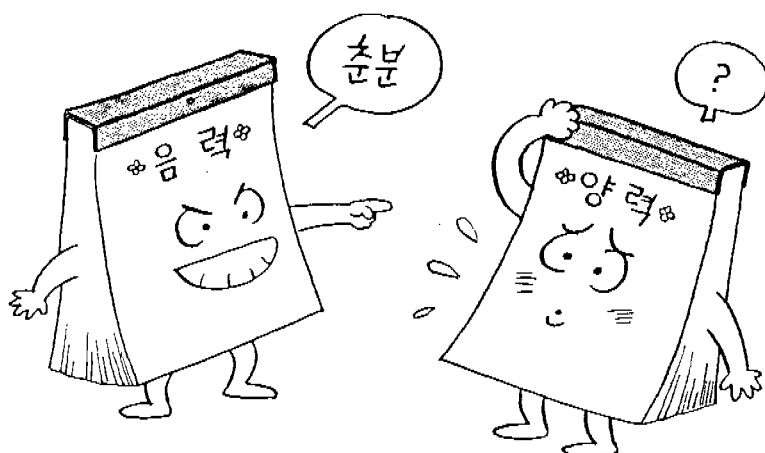
- ▷ 음력은 양력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이야기한다.
- ▷ 음력이 갖는 장점은 무엇인지를 논의한다.
- ▷ 논의가 끝난 후 우리풍속이 음력을 토대로 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한다.

#### 활동방법

\_\_\_\_ 시청각    ☒ 토론    ☒ 강의    \_\_\_\_ 역할연기    ☒ 분임토의

퐁퐁이의  
도움활동

음력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저는 생일잔치를 음력에 따라 하는데 아주 귀찮거든요. 음력이면 음력, 양력이면 양력,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나이만 해도 그래요. 서양식으로 만 몇세 하면 그만이지 만으로는 몇 살, 우리나라로는 몇 살, 너무 번거롭지 않나 하는게 저의 주장입니다. 먼저 만으로 나이가 몇 살이라고 운운하는데, 퐁퐁이의 생명이 언제부터 탄생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아. 어머니 뱃속에서 막 세상에 나왔을 때부터라구요? 그렇다지만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것은 누구인가요? 서양에서는 보이는 것만 계산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오히려 더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또한 양력으로 계산하는 것이 많은 잇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날씨를 생각하는 데는 음력이 아직도 유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날씨와 관련된 방송을 할 때, “오늘은 입춘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며 음력과 비교를 해서 설명해주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더욱 심오한 것은 우리 문화가 농경문화라는 것을 생각할 때, 농사일과 음력은 땔래야 땔 수가 없는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서양의 기술 문명에 의해 사라져 가는 우리 문화의 가치를 생각할 때 정말 음력에 깃든 우리의 정신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조들은 이미 4, 5천년 전에 통계숫자를 통하여 천체의 변화를 해독하여 태음력을 사용하였고, 또 춘하추동 4계절과 24절기를 정하였다. 물론 우리민족이 농경민족이기 때문에 태음력은 농경행사의 규칙성에 따라 태동한 것이긴 하지만 근대 기업경영책과 다름 없는 행사계획표를 이미 전해의 세시기를 중심으로 세워져 실시하였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세시기가 처음부터 보편화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고대의 천체학은 해독하기가 곤란하여 보편적으로 보급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다만 천관들에 의하여 이것이 연구되고, 또 관장되고 있었으며 그들이 해독한 천체의 시기에 따라 그해는 물론 앞날의 행사계획이 수립되었다.

통치자는 이렇게 수립된 행사계획을 온 국민에게 권장하였으며 이런 행사가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가운데 세시풍속으로 되어 보편적으로 보급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천관들에 의하여 세워진 행사계획이라 하여 무조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백성들이 즐겨하고 잘 살 수 있는 풍속은 미풍양속으로 남아서 권장을 받게 되지만 백성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행사에서 얻어진 풍속은 악풍이라 하여 배제시켰던 것이다.

자료 : 강무학, 1990.

## 활 동 2 풍년점치기

활동내용

- ▷ 우리의 세시풍속은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었는지 논의한다.
- ▷ 각자 신문지 한장으로 종이 막대기를 만들고, 둥그런 원을 만들어 노래를 부르면서 돌 때, 진행자가 갑자기 인원수를 부르면 인원수대로 모인다.

- ▷ 인원수대로 모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종이막대기를 길게 연결한다. 진행자는 주사위 2개를 2번 던져 나온 주사위 눈의 수를 모두 합한 후 8로 나눈 나머지 숫자의 방향에서 라이트를 비춘다. 모인 모듬 중에서 그림자가 가장 긴 모듬이 이긴다.
- ▷ 우리의 풍속이 농경문화와 어떤 관련을 갖는지를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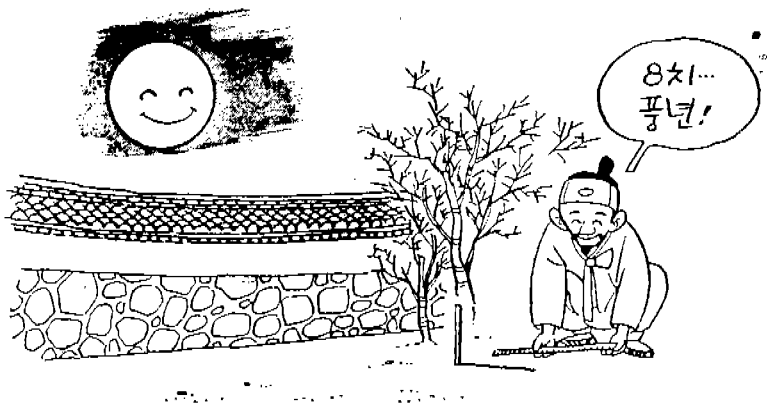
## 활동방법

✓ 분임토의    토론    강의    ✓ 시청각    ✓ 공개토론

## 풍통이의 도움활동

그리고 보니 우리 풍속은 대부분 농사짓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농사를 짓지 않는 겨울이나 농사를 다 짓고난 가을에서 대보름때까지의 놀이가 많은 것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또 한해의 처음부터도 가장 관심이 많은 것도 농사를 잘 짓게 해 달라고 빌거나 농사가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점치는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대부분 도시에 살기 때문에 쌀값 걱정은 해도 농사가 잘 될 것인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시골에 가면 할머니가 밥을 엄청나게 큰 그릇에 수북히 주시는 거라든지, 어느 집에 가도 반갑게 맞아 주는 인심이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조들께서 새해가 되면 풍년이 들 것인가 안 들 것인가를 점쳤던 풍년점치기를 알아볼까요? 점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것은 아니고, 풀 한 가운데 한 자 되는 나무를 세워 놓고 달빛에 생긴 그림자의 길이를 측정해서 여덟 치가 되면 비와 바람이 순조로와 큰 풍년이 되고, 일곱치나 여섯치가 되면 흉년이 든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많이 해 본 사람수대로 모이기 아시죠? 노래를 부르며 원을 따라 돌다가 진행자가 몇 명이라고 부르면 그 수대로 모이는 것 말이에요. 그게 무슨 풍년점치기나가요? 천천히 끝까지 들어보세요. 우리가 놀이를 하는 방에는 이미 여덟 방향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원수 대로 모인 사람들만 일차 합격이고 나머지는 탈락입니다. 그리고 1차에 통과한 사람은 각자 받은 종이를 맡아 종이 막대기를 만든 다음 최대한 길게 잇습니다. 그러면, 진행자가 주사위 2개를 두 번 던져 달빛의 위치를 정합니다. 일단 달빛은 손전등의 불빛을 사용하면 됩니다. 빛의 방향은 주사위의 숫자를 합한 것에서





여덟을 나누면 방향이 나오겠지요? 거기서 달빛을 비추면... 이제 그림자가 긴 모듬이 이기게 됩니다.

#### 도움자료

#### □ 풍년을 기원하는 우리풍속

신년을 맞이해서 그 해의 신수는 어떨지 또는 1년 농사는 풍작이 될지 궁금했다. 이러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점복이 성행되었다. 그 해에 풍년이 들지를 점치는 풍점(豐占)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입춘날에 농가에서는 보리를 뽑아 그 뿌리를 보아 보리가 풍작인지 흉작인지를 점친다. 보리 뿌리가 셋이면 풍년, 둘이면 평년작, 하나 밖에 없으면 흉년이라 점친다. 뿌리가 시들었을 때에도 흉작이다. 즉, 뿌리가 많고 싱싱하면 그만큼 성장이 좋은 것이기에 농부들은 보리 뿌리로 점치는 맥근점으로 풍흉을 미리 알려고 한다.

14일에는 풍점법으로 달불이를 한다. 종지나 작은 그릇 안에 물을 담고 그 안에 콩알을 12개를 넣는데, 이때의 12개는 12개월을 의미한다. 다음 상원날 아침에 그릇안의 콩을 보아 어느 것이 불었고 어느 것이 안불었나를 보아 그 달의 일을 짐작하게 된다. 즉, 6번째 콩이 불었으면 6월에는 곡식이 잘 자랄 것이지만 하나도 불지

않았으면 날씨가 가물어 흉작이 예상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점법이  
다.

상원날 저녁에 달맞이를 하는데 달을 보아 풍흉을 점치기도 했다.  
달의 크기와 빛깔로 점쳤고, 사발 안에 재를 담고 그 위에 곡식알  
을 하나씩 놓아 12개를 만들어 밤이 지난 다음날 아침에 재가 날리  
고 곡식이 움직인 상태를 보아 월별로 점치는 수도 있다.

또한 뜰 한가운데 한자되는 나무를 세워놓고 그 그림자의 길이를  
측정하여 이 해의 흉년과 풍년을 점친다. 그 그림자의 길이가 여덟  
치가 되면 비와 바람이 순조로와 큰 풍년이 들고, 또 그 길이가 일  
곱 치가 안되면 수해와 별레가 심하고 또 세치가 되면 곡식이 여물  
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료 : 임동권, 1989 ; 강무학, 1990.

### 활 동 3 어촌에는 어촌의 풍속이

#### 활동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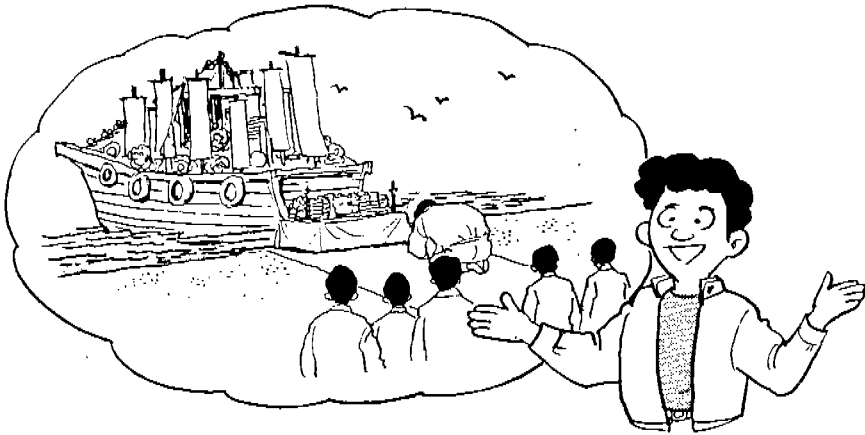
- ▷ 우리의 세시풍속이 지역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파악한다.
- ▷ 어촌에는 어떤 풍속이 있는지 그 성격에 대해서 상상하고, 발표  
한다
- ▷ 실제로 어촌지역의 풍속을 찾고 그 풍속의 내용을 파악한다.

#### 활동방법

\_\_\_ 공개토론 ☒ 토론 \_\_\_ 강의 \_\_\_ 구안법 ☒ 현지답사

#### 풍통이의 도움활동

‘신토불이’가 몸과 땅이 다르지 않고 하나라는 뜻이라는 것쯤은 저  
도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신투불이’, 그러니까 몸과 물이 다르지  
않고 하나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어느나라에서는 물이 귀해  
물을 사먹는다고 하더군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물을 많이 사먹기  
는 하지만요. 땅만큼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게 물인 것 같  
아요.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듯이, 다양한 물고기를 잡아 먹기도



하고, 미역같은 해초도 많이 먹으니까요. 그렇다면 어촌에는 어떤 풍속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이 문제를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기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산에는 산신께 드리는 제사가 있으니 바다에는 바다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많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 같아요. 저도 자신있게 손을 들고, 농사가 잘되게 해달라는 행사가 있듯이 배가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배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용수가 “맞아 요새 자동차를 새로 사면 고사를 지내는 것과 같아”라며 자신의 집에도 며칠전 새차를 샀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홍선이는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한 점을 치는 풍속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각자 어촌의 풍속을 찾아보았더니, 제가 말한대로 경남지역에서는 설달 그믐날에 배에 성황기나 그외의 모든 기를 달고 선주가 배에서 제사를 지내는 ‘배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선이의 말대로 제주지역에서는 음력 1월 7일 점을 쳐서 신수가 나쁘다면 용왕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또한 기수가 말한대로 전남에는 하원의 달이라는 풍속이 있는데, 10월의 보름달이 서산에 완전히 진 후에 날이 새면 그해에 운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흉하다고 점치는 것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특히 이러한 풍속이 많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든지 관습이 있다. 같은 풍토적 조건 속에서 생활을 되풀이하는 동안 자연히 관습이 생기게 마련이고 사람들은 이 관습에 의해서 행동하고 사고하는 수가 많다. 넓고 푸른 바다 속에는 아직 인류의 손이 닿지 못한 곳이 있거니와 어부들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 산촌생활이나 농촌생활은 다같이 육지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위험이 적다. 그러나 어부들은 바다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늘 위험이 따르므로 때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는 수가 많다. 그러므로 육지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철학과 다를 수가 있는 것은 물론이며 생활양식이나 관습, 나아가서는 민속도 다르기 마련이다. 그들은 바다에 관한 지식이 있다. 달과 조수가 관계가 있다든가 바람이면 어떻게 되고, 어느 때면 무슨 고기떼가 나타나며, 어느 시각에 고기가 잘 잡히고, 어떠한 경우에는 고기가 잘 안잡히고 하는 등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지식에 의존해서 바다를 정복하는 능력, 배를 만들고 배를 띄워 항해하고 고기잡이 기구들을 만들고, 능력을 축적하여 물속에서 진미를 건져내어 만선을 하는 기쁨을 누린다. 그것이 어촌에 사는 사람들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소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생활양식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어촌의 민속은 굳어지고 산촌이나 농촌과 다른 양식이 마련된다.

자료 : 임동권, 1989.

## 활 동 4 음력달력 만들기

### 활동내용

- ▷ 선조들이 생활했던 방식 즉 양력이 아니라 음력에 기초해서 생활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지를 생각한다.
- ▷ 전지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를 준비하여 음력으로 된 달력

을 만든다.

- ▷ 스케치북 한 쪽에는 달표시와 날표시를 하고 다른 한 쪽면에는 그 때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린 후, 주요 절기를 표시하고 그 절기에 할 수 있는 놀이를 표시한다.
- ▷ 양력으로 생각하던 것을 음력으로 그리고 세시풍속과 연관지어 생각했을 때 자기 생활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이야기한다.

활동방법

☒ 게시 및 전시   ☒ 토론   ☐ 강의   ☐ 워크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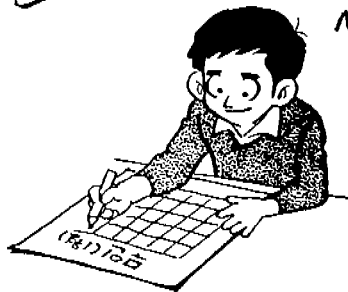
풍통이의  
도움활동

음력으로 생각한다? 양력으로 생각하는 것이 버릇이 된 저로서는 도저히 음력으로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달력 자체를 음력으로 바꾸어 매일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1년만 보면 조금은 머리 속에 새길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올해 이름을 찾아보구요. 올해(1995년) 이름이 뭐더라.... 아 참, 올해년이었죠. 그리고 월이름도 적어보죠. 그런데 달에도 이름이 있어요. 일에도 이름이 있구요. 시에도 이름이 있어요. 무슨 이름이 그렇게 많냐구요? 그런데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요. 십간십이지. 아시죠? 연, 월, 일, 시를 이름해서 사주라고 하구요, 연에는 올해와 같이 이름이 두 자고 월, 일, 시에도 각각 두 자씩 이름이 붙기 때문에 여덟자, 즉

1995년  
을해년

무인(1월) 임술(1월) 계해(2월)....  
지묘(2월).....

설날 대보름 입춘  
중화절 경칩  
춘분 삼짇날.....



팔자가 되는 겁니다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사주팔자입니다. 1995년 정월 이름은 무인이구요, 2월은 기묘, 3월은 무열까요? 그리고 정월 초하루는 임술이고, 둘째날은 계해, 셋째날은 갑자예요. 그리고 음력 정월 초하루는 양력으로 1월 31일이 되는군요. 진짜 적어야 할 게 있어요. 우리의 절기들이죠. 하나씩 하나씩 적어보세요. 새해 첫날인 설날, 대보름, 입춘, 중화절, 경칩, 춘분, 삼짇날, 곡우, 청명, 한식, 초파일, 단오, 태종우, 유두일, 삼복, 칠석, 백중절, 한가위, 중양절, 손돌날 등등입니다. 이제 저의 책상 앞에는 제가 만든 음력 달력이 달려있습니다.

## 도움자료

### □ 24절기

1년을 4등분한 것이 춘하추동 4계절이라면 1년을 24등분한 것이 24절기이다. 하필이면 왜 24등분했을까. 그것은 1년을 12등분한 원인이 달의 차고 기움에서 왔다면 4계절 역시 이에 근거하여 계절의 변화가 일정기간에 네 번 일어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360의 수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인다. 360은 60갑자(甲子)의 6배이고, 12지, 12월의 30배이며, 4계절인 4의 90배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수 관계가 있는 것이 4, 12, 24인 것이다. 이십사절기는 다음과 같다. 입춘(立春, 2월 4일경), 우수(雨水, 2월 19일경), 경칩(驚蟄, 3월 6일경), 춘분(春分, 3월 21일경), 청명(清明, 4월 5일경), 곡우(穀雨, 4월 21일경), 입하(立夏, 5월 6일경), 소만(小滿, 5월 22일경), 망종(芒種, 6월 6일경), 하지(夏至, 6월 22일경), 소서(小暑, 7월 8일경), 대서(大暑, 7월 23일경), 입추(立秋, 8월 8일경), 추분(秋分, 9월 23일경), 한로(寒露, 10월 9일경), 상강(霜降, 10월 24일경), 입동(立冬, 11월 8일경), 소설(小雪, 11월 23일경), 대설(大雪, 12월 8일경), 동지(冬至, 12월 22일경), 소한(小寒, 1월 6일경), 대한(大寒, 1월 21일경)

자료 : 김성원, 1987.

### 3. 유의사항

- ◎ 풍속놀이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가까이 있음을 깨닫고, 이를 더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 풍년 점치기 놀이는 동국세시기에서 나온 놀이로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행한 것이므로 게임을 하기 전에 동국세시기에 나온 놀이를 간단히 소개하고 이 놀이를 통해 선조들이 가졌던 풍년への 기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 서구화된 시간개념을 음력을 통해 전통적 사고방식으로 바꾸어서 생각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 4. 참고

#### □ 우리민족이 중시하는 풍속

##### ◎ 설날

새해의 첫날인 정월 초하룻날을 ‘설날’이라고 한다. ‘설’이란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조심한다는 뜻이다. 또한 설날을 ‘원단’, ‘세수’라고도 한다. 한해의 운수가 그해의 첫날에 달려 있다고 믿었던 조상들은 이날 새로운 정신과 몸가짐으로 복을 기원했다.

##### ◎ 작은보름

정월의 14일은 작은보름이라고 하는데, 초하룻날 이후에 가라 앉았던 명절의 기분이 다시 이날부터 일기 시작하여 15일을 고비로 끝이 난다. 14일과 15일에 행해지는 각종 행사나 놀이는 거의 농사일과 관계가 깊다.

##### ◎ 대보름

정월 15일은 대보름날로 일명 ‘상원’이라고도 한다. 삼국시대의 세

시행사를 보면 매달 초하루와 보름날에 조례를 지내고 종묘사직에 간소한 제사를 지냈다고 하고, 일반 백성들도 초하루와 보름날에는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정월 대보름날의 행사는 연중행사를 정성껏 치르기 위해 제정된 세시행사의 하나로 볼 수 있다.

#### ◎ 입춘

입춘은 24절후 중의 하나인데, 그 명칭이 지칭하는 바와 같이 봄으로 접어든다는 절후이다. 음력으로는 절기의 차가 심하여 그 해의 선달에 들기도 하고 정월과 12월에 거둬 들기도 한다. 입춘은 24절기 중의 첫번째 절기로, 태양의 황경이 315도로서 이 시각부터는 봄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 ◎ 중화절

음력 2월 1일을 ‘중화절’이라고 하는데, 나라에서는 중화절을 기념하기 위해 자를 만들어 재상과 시종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이것을 중화척이라고 하는데, 이 자는 대나무로 만들었으며, 농업을 권장하는 뜻에서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풍습은 서기 796년 당나라에서 2월 삭일을 중화절로 정한 것이 원인이 되어 중화통치의 형태를 모방한 나라는 모두 이러한 예를 따른 것이다.

#### ◎ 경칩

한겨울이 지나 경칩일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져서 풀이나 나무의 새싹이 돌아나고, 겨울잠을 자던 짐승들도 땅속에서 나온다. ‘경칩’은 우수 다음에 있는 이십사절후의 세번째 절기로 음력으로는 2월이며 양력으로는 3월 5일을 전후로 들어 있는데, 이날 농촌에서는 논이나 물이 권 곳을 찾아가 개구리 알을 건져와 먹는다. 개구리가 동면에서 깨어나는 것은 부활이나 재생의 상징이고 그 알을 먹는 것은 화를 없애려는 의도였다.

#### ◎ 춘분

춘분은 24절기 중에서 2월에 속해 있는 절기인데,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날이다. 춘분해 행해진 행사로는 경주지방에서 박, 석, 김씨의 초대왕 능향이 있다.

#### ◎ 삼진날



음력 3월 3일을 ‘삼짇날’이라고 하는데, 9월 9일에 강남으로 떠났던 제비가 옛집으로 찾아온다고 한다. 이 무렵이 되면 날씨도 온화하고 산과 들에는 꽃들이 피기 시작한다.

#### ◎ 곡우

곡우는 24절기의 하나로 ‘못자리’를 마련하는 절기이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논갈이가 시작된다. 곡우 무렵이면 농촌에서는 못자리를 하기 위해 범씨를 담근다. 범씨를 담아 두었던 가마니는 솔가지로 덮어두는데, 밖에 나갔다가 부정한 일을 당했거나 그런 걸 본 사람은 집에 들어와서도 범씨를 보지 않는다. 부정한 사람이 범씨를 보면 싹이 잘 트지 않아 농사를 망치게 된다고 믿었다.

#### ◎ 청명

청명에는 느릅나무와 버드나무에서 불을 일으켜 각 관청에 나누어 주는데, 이 관습은 주판에서 불을 내어 당나라와 송나라에서 불을 나누어 주던 옛 풍속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농촌에서는 이날부터 농사가 시작된다.

#### ◎ 한식일

한식일은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로 잡기 때문에 음력으로 2월에 들기도 하고 3월에 들기도 한다. 한식은 입춘이나 우수, 대한과 같이 정식으로 24절후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전설이 바탕이 되어 특별히 풍속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 ◎ 초파일

4월 초파일은 석가모니의 탄생일이라고 하여 불교계에서는 가장 큰 명절이다. 초파일을 며칠 앞두고 가정이나 절에서는 여러가지 등을 만들어 걸어 둔다.

#### ◎ 단오

음력 5월 5일은 단오날로 수리, 천중절, 중오절이라고도 하고 순수한 우리말로 ‘수릿날’이라고 한다.

#### ◎ 태종우

음력 5월은 하지가 들어있는 달인데, 이 하지를 중심으로 6일간이 모심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한다. 특히 농가에서는 음력 5월 10일이 되면 비가 내리기를 고대하는데, 만약 이날 비가 내리면 풍

년이 들 징조라고 하여 매우 기뻐한다.

#### ◎ 유두일

음력 6월 15일을 ‘유두날’이라고 한다. 유두날에는 맑은 개울을 찾아가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으며 하루를 즐겁게 논다. 그러면 액을 물리칠 수 있고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 ◎ 삼복

천세력에 정해진 ‘초복’, ‘중복’, ‘말복’을 모두 합쳐서 ‘삼복’이라고 한다. 이때의 더위를 삼복더위라고 하며, 1년 중 가장 더운 때이다. 복중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술과 음식을 마련해 골짜기나 정자를 찾아 더위를 잊고 풍류를 즐기는 풍습이 있었다. 이러한 풍습을 ‘복다림한다’고 한다.

#### ◎ 칠석

음력 7월 7일을 칠석이라고 한다. 이날 저녁에 처녀들은 하늘에 모여있는 별들 중 직녀성에게 바느질 솜씨가 늘기를 빌었다고 한다. 또한 글공부를 하는 소년들은 견우성과 직녀성을 제목으로 시를 지었다고 한다.

#### ◎ 백중절

음력 7월 15일을 ‘백중절’ 또는 ‘백중일’, ‘망혼일’이라고도 한다. 절에서는 승려들이 재를 올리며 불공을 드리는 큰 명절로 여기는데, 신라와 고려시대에는 백가지의 꽃과 과일을 부처님께 공양하였다고 한다.

#### ◎ 한가위

음력 8월 15일은 ‘추석’ 또는 ‘중추절’, ‘한가위’라고 한다. 한가위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우리민족의 큰 명절이다.

#### ◎ 중양절

음력 9월 9일을 ‘중구’ 또는 ‘중양절’이라고 한다. 중구라는 말은 9가 겹쳐있다는 뜻이고, 중양은 양수가 겹쳤다는 뜻으로 여기서의 양수란 홀수를 말하는 것이다.

#### ◎ 말날

‘말날(馬日)’이란 음력 10월에서 첫번째의 말날(午日)을 말하는 것으로, 이날에는 특히 말을 위하는 풍속이 있다. 이날에는 팔떡을

하여 마굿간 앞에 차려 놓고 말의 건강을 빌기도 한다.

#### ◎ 손돌날

음력 10월 20일에 관례적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손돌풍’ 또는 ‘손돌이바람’이라고 하고 이날을 손돌날이라고 한다.

#### ◎ 동지

동지는 24절기 가운데 22번째에 해당하는 절기로, 하지는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날인데, 동지는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 양력으로는 대개 12월 22-23일경이 되는데, 음력으로 11월을 동짓달이라고 부르는 것은 동지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동짓날을 작은 설이라고 부를 정도로 명절로 삼았다.

#### ◎ 납향

동짓날로 부터 세 번째 되는 미일(未日)을 ‘납향’이라고 하는데, 이날은 그해에 지은 농사형편과 여러가지 일에 대해 신에게 고하는 제사를 지낸다. 이것은 부여시대에 행해진 ‘영고’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 ◎ 선달그믐

1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말일을 선달 그믐이라고 하고, 그믐날 밤을 ‘제석’ 또는 ‘제야’라고 한다. 그리고 이날 밤 궁중에서는 연중방포라고 하여 대포를 쏘았고, 민가에서는 연중에 있었던 거래가 종결되는 날이라고 하여 빛이 있는 사람은 해를 넘기지 않고 이날에 모두 청산했다고 한다. 또한 남으로부터 받을 빛이 있거나 외상이 있는 사람은 이날 찾아다니며 받아야 한다. 만약 자정이 넘도록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월 보름까지는 빚독촉을 하지 않는다.



## 우리 품 속 의미찾기



소원과 같이 도는 탐돌이  
세시풍속따라 전국일주  
이 놀이는 어디서?  
어디 숨었나 나의 신발



## 1. 활동과정

|                  |                                                               |                                           |                                               |                                                    |
|------------------|---------------------------------------------------------------|-------------------------------------------|-----------------------------------------------|----------------------------------------------------|
| 개<br>요           | 우리풍속이 갖는 기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지역과 절기에 따라 풍속의 특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사한다. |                                           |                                               |                                                    |
| 활<br>동<br>과<br>정 | 소원을 비는 세시 풍속의 옛모습과 현재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그 내용을 파악한다.                 | 지역에 따라 세시 풍속이 어떻게 다른가를 파악하여 그 지역의 특징을 안다. | 지방에서 유명한 풍속놀이를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게임을 통해 그 내용을 안다 | 새해를 맞이하는 풍속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하고 그 속에 담겨진 의미와 교훈을 찾는다. |

## 2. 활동내용

### 활동 1 소원과 같이 도는 탑돌이

#### 활동내용

- ▷ 우리 선조들이 신에게 빌었던 문제는 어떤 것일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우리 자신의 문제와 비교한다.
- ▷ 모둠별로 대표자 한 사람을 뽑은 다음, 각자의 소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최대한 많이 이야기한다.
- ▷ 대표자가 나와서 탑이 된 다음, 구성원들은 다른 사람의 소원 한가지씩을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서 탑을 돈다. 소원이 없을 때까지 계속하는데 먼저 소원이 없어진 모듬이 진다.
- ▷ 게임이 끝난 후 재미있었던 점이나, 상대방의 소원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 활동방법

시청각 ☒ 토론 ☒ 게시 및 전시 ☐ 현지답사 ☐



## **풍통이의 도움활동**

세시풍속이 농사짓는 일과 관련이 있다지만, 어떻게 농사와 관련 있는 것만 있겠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정마다 사람들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록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위주로 하는 정책이 실시되었지만, 그래도 불교는 연연히 맥을 이어왔기 때문에 불교와 관련된 풍습도 많답니다. 그 중 하나가 부처님의 태어나신 4월 초파일에 탑을 돌면서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고 저마다의 소원을 비는 것입니다. 불탑안에 부처님이나 돌아가신 스님의 사리를 넣어두는 건 아시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어떤 소원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때 물론 과거시험이 있었습니다만 양반 자제라고 다 시험준비만 한 것을 아녔테고, 대다수 평민 자제들은 시험이 없었을텐데 무슨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멀리 가지 말고 조선시대 후기를 봅시다. 여기 집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웬 울음소리가 납니다. 누가 돌아가셨나봐요. “왜 다들 울고 있어요?” “요즘, 역병이 돌고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이 동네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당시에는 항생제가 없었으니 이런 전염병은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병들지 않고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소원이 될 수 있겠군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조금씩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므로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망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현재의 우리로 돌아와 봐요. 벌써 우리 모두가 소원을 빌 차례가 됩니다. 기수가 대표로 나와 불탑이 되어 서로 각자 불탑을 돌면서 친구들의 소원을 기억나는 대로 한가지씩 빌어 주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제 친구 중 하나가 공부잘하는 것이 소원이오니 꼬옥 잘 하게 해 주십시오.” 용수가 이야기 합니다. “제 친구는 어떤 친구와 사이가 좋질 못해요. 다시 친하게 될 수 있도록 두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 주세요.” 한 번 돌고 두 번 순서를 돌아서 소원을 모두 얘기했을 때, 재철이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은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데 은혜는 자꾸 제 친구를 싫어해요. 은혜의 마음을 바꿔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은혜의 얼굴을 쳐다보니, 은혜의 얼굴이 그만 새빨개집니다.

## 도움자료

### □ 탐돌이

탐돌이란 절의 행사가 끝나면 불교신자들이 스님들과 같이 불탑을 돌면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미하고, 제각기 소원을 비는 것을 말한다. 석가모니가 입적하자 불교에서 여덟 개의 탑을 세우고, 유골을 그 속에 나누어 넣어 둔 뒤부터 불탑이 건립되어 점차 흥왕하기에 이르렀다. 탐돌이 때에는 불교음악으로서 사법악기인 종, 북, 운판(절에서 시각을 알리기 위하여 치는 구름 형상의 청동판), 목탁이 울려 퍼지고, 때에 따라서는 삼현육각도 등장했었다.

원래 탐돌이는 탑을 돌면서 남 몰래 혼자서 자기의 염원을 기원하는 것이었는데, 점차 많은 사람이 참가하게 됨에 따라 즐거운 놀이로 성격이 변하여 음력 4월 초파일이나, 8월 추석에 모여하게 되었고, 이 때는 불교신도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까지 참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의 민속놀이로 진전되어 갔던 것이다.

자료 : 최상수, 1988.

## 활동 2 세시풍속따라 전국일주

### 활동내용

- ▷ 서울, 경기도, 강원지역과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지역별로 모둠을 나누어 각 지역에 어울리는 색깔, 습관, 풍속, 속담 등을 정한다.
- ▷ 한가지씩 카드에 적어 조그마한 함에 둔다.
- ▷ 각 모둠에서 한명씩 돌아가며 카드를 꺼내 카드의 주인을 찾는다.
- ▷ 카드를 쓴 사람을 가장 많이 맞춘 모둠이 승리한다.

### 활동방법

\_\_\_\_\_ 시청각 ☒ 토론 \_\_\_\_\_ 공개토론 \_\_\_\_\_ 현지답사

### 풍통이의 도움활동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는 어떤 특색이 있을까요? 기수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파란 하늘 밑의 파란 바다가 있는 곳이라며 자신있게 ‘색 : 파란색’이라고 카드에 적고, ‘풍속 : 뱃고사’를 적습니다. 옆에 있던 재철이는 ‘색 : 녹색, 풍속 : 산신제’를 적습니다. 아마도 고향이 강원도인가 봅니다. 저는 ‘색 : 흰색, 풍속 : 없음’을 적습니다. 서울이 고향이거든요. 이렇게 몇개의 카드에 자신의 고향에 대한 특성을 적고나니, 해안지방을 고향으로 둔 친구들이 가장 많은 추억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선모는 ‘색 : 노랑, 풍속 : 손돌날’을 적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풍속이기 때문에, 손돌날이 어떤 풍속이냐고 묻자, 선모는 의연한 모습으로 강화도 근처에서 부는 손돌풍이라는 바람과 관련된 전설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풍속이 있나 싶더군요. 게임이 시작되자, 고향이 두 개인 친구도 나오고, 세 개인 친구도 나옵니다. 아마도 비슷한 환경의 고향을 가진 친구들이 많기 때문인가 봅니다. 물론 선모의 카드는 맞추었죠.



#### 도움자료

#### □ 손돌날(孫石(覿)日)

음력 10월 20일을 ‘손돌이날’ 또는 ‘손돌날’이라 한다. 김포(金浦)에서 강화(江華)로 가는 바다에 있는 길목인데, 물이 소용돌이쳐서 뱃길로는 대단히 위험한 곳이다. 손돌이라는 사공이 귀한 사람(일설에는 임금이라고도 함)을 배에 태우고 이 바닷길목을 지나다가 그 귀한 사람이 손돌이가 고의적으로 자기를 위험한 곳으로 끌고 온 것으로 오해하여 죽이고 말았다. 이 손돌이 원통하게 죽었으므로, 자기가 억울하게 죽은 10월 20일이면 별안간 춥고 비바람이 치는 일이 흔히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날을 ‘손돌이날’ 또는 ‘손돌날’이라고 하여, 겨울 옷을 준비하여 월동할 준비를 하게 된다.

어느 사람이 마침 10월 20일이 자기 아버지 제삿날인데, 이날이 몹시 추우므로 마음속으로 손돌이를 연상하여 ‘그 놈 죽은 날은 언제나 이렇게 춥다’하였는데, 그 놈이 손돌이를 지칭한 것이지만, 자기 아버지도 포함된다 하여 이날 제사가 있는 사람을 놀려대는 일이 흔히 있다.

### 활동 3 이 놀이는 어디서?

#### 활동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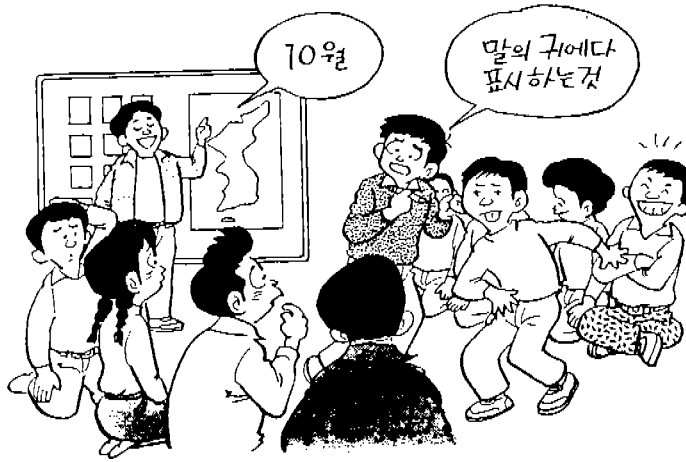
- ▷ 각 지역마다 풍속이 다른 이유를 이야기한다.
- ▷ 두 모둠으로 나눈 후 서로 마주보고 대표자들만 자리를 바꾼 다음, 두 모둠이 다 볼 수 있도록 맨 앞에 놀이가 가득 적혀 있는 큰 종이를 제시한다.
- ▷ 시작하는 모둠의 뒤편에 놀이 한가지가 적힌 카드를 제시하면 대표는 이것을 보고 몸짓으로만 설명한다. 같은 모둠의 사람이 앞에 있는 놀이이름 중에서 골라 답하고 차례대로 한 문제씩 풀 어간다.
- ▷ 맞춘 놀이가 어떤 지역의 놀이인지 모둠 구성원이 협의하여 카드를 우리나라 대형지도에 붙여 다시 점수를 매긴다.

#### 활동방법

☒ 워크샷 ☐ 구안법 ☐ 현지답사 ☒ 역할연기

#### 풍통이의 도움활동

지역마다 그 지역의 지리적인 특성과 날씨에 따라서 풍속이 다르다는 것이 풍속에 대해 많은 활동을 해 온 우리들에게는 이제 상식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난이도를 조금 높혀 지방별로 특징적인 풍속놀이를 찾아보기로 했죠. 우리나라의 지역별 풍속놀이를 찾아보니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더군요. 그것도 날짜별로 정리하자면, 책으로 50페이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풍속놀이 중에서 전북지역에서 음력 1월 3일날 했다는 ‘걸림’, 제주도에서 1월 7일에 했다는 ‘용왕제’, 작은 보름인 1월 14일에 충남지방에서 했다는 ‘적선’ 등을 커다란 종이에 적습니다. 먼저 우리모듬의 대표로 나선 저 풍통이에게 주어진 풍속놀이는 ‘서낭당 세우기’였습니다. 사회자가 “2월의 풍속입니다.”라고 힌트를 주자, 저는 짐을 짓는 행동을 커다랗게 하고, 그 앞에서 수염을 길게한 노인이 절을 하며 제사를 지내는 흉내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고향이 부산인 인배가 ‘서낭당 세우기’라고 외쳐 경남지방에 카드를 붙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말과 소의 귀에 표시하기’인데, “10월”이라는 사회자의



도움말과 함께 말처럼 생긴 태형이를 끌어내어 그 친구의 귀에 붉은색 싸인펜으로 표시를 하는 흉내를 냈지만, 우리모듬의 친구들은 그저 멍한 표정으로 쳐다볼 뿐입니다. 하도 답답한 저는 “말의 귀에 표시하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카드 한장을 잃어버렸죠. 생각 같아서는 금방 몸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못하더군요. 우리 모듬의 지도에는 겨우 세개의 카드만이 매달려 있었고, 상대방의 지도는 여러장의 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모듬이 졌나봐요.

#### 도움자료

#### □ 사는 모습과 세시풍속

사람의 사는 모습은 다양하다. 농경, 어로, 상공업 등 여러가지의 생업이 있다. 생업은 생을 보장하고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어떠한 생업이든 갖게 된다. 생업과 관계되는 생산양식은 생활양식을 결정하며 세시풍속에 영향을 준다. 생업에 따라 계절을 의식하게 되고 일의 완급이 있게 된다. 농가에서는 겨울이 되면 한가하지만 수렵꾼이나 명태잡이를 하는 어부들은 명절에도 바쁘기만 하다. 이 상반되는 현상은 세시풍속에 그대로 반영된다.

어민들은 고기잡이가 생업이기 때문에 조류와 간만에 관심이 많다.

따라서 그들의 세시풍속은 농부들의 그것과 그 다를 수 밖에 없다. 내륙사람들이 산신을 소중히 하는 데 비해서, 어민은 바다신을 신앙하는 마음이 강하다. 배안에 배서낭이 있으며 출어기에는 정성을 드려 고사를 지낸다. 산삼을 캐는 채약인들은 산신에 관한 의식이 강하고 여기에 따라 금기제외가 행해진다.

우리의 세시풍속은 거의가 농경생활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 고대에 농사를 마치고 가을에 하늘을 제사한 것이며, 10월을 상달이라 해서 일년 중에서 가장 높은 달, 즉 하늘을 제사하는 달로 여기는 제식이 있었으며 정초에 풍년들기를 기원하며 축복하고, 봄에 역귀를 예방하는 행위 등 세시풍속은 생업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자료 : 임동권, 1989.

## 활 동 4 어디 숨었나 나의 신발

### 활동내용

- ▷ 신발숨기기의 유래에 대해 설명한다.
- ▷ 두 모둠으로 나누고 자기 신발을 다른 모둠에게 준다.
- ▷ 먼저 한 모둠이 정해진 시간동안 상대모둠의 신발을 한 짝씩 숨기고, 상대모둠은 4박자 노래를 부른다.
- ▷ 다 숨기고 나면 정해진 시간동안 자기 신발을 찾는다.
- ▷ 같은 방법으로 바꾸어 한다. 신발을 많이 찾은 모둠이 이기게 되며, 이긴 모둠은 상대방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나쁜 귀신 몰러가라”고 하면 상대방은 우는 흉내를 내며 도망간다.

### 활동방법

☒ 역할연기    ☐ 토론    ☒ 강의    ☒ 분임토의

### 풍통이의 도움활동

옛날에는 야광귀라는 귀신이 있었는데, 그 귀신은 정월 첫날밤에 신발을 감추지 않으면 신발을 신고 가버린답니다. 그러면 일년동안 운수가 좋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설날밤에 신발을 감추는 풍습



이 생겼나봐요. 이 귀신의 정확한 이름은 ‘야광귀’ 혹은 ‘양쟁귀’라고 하는데, 밤에 빛을 낸대요. 옛 조상들이 왜 그런 놀이를 했는지 이유를 알기 위해 우리도 비슷한 놀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귀신과 놀겠다는 게 아니라 귀신놀이를 하는 거지요. 상대 모두가 우리의 신발을 숨기는 동안 설날 기분을 내기 위해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라는 동요부터 시작해서 설날과 관련된 동요를 부릅니다. 이제 우리가 자신들의 신발을 찾는 시간이 왔습니다. 재치있는 기수는 쉽게 자신의 신발을 찾고, 다른 친구들이 신발 찾는 것까지 도와주었지만, 저는 끝내 저의 신발을 찾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발을 숨긴 사람조차도 저의 신발을 어디에 감추었는지 모른다는 것이예요. 신발 모양이 비슷비슷해서 자기가 숨긴 신발을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던거죠. 그래도 게임은 계속 진행되어 우리모두가 승리하였는데, 상대모두에게 “나쁜 귀신 물러가라”라고 외치자 상대모두는 머리만 긁적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려는데, 신발이 없으니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설날 새벽에 신발을 감추는 것이 모든 외출시에 몸가짐을 조심하라는 뜻과,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정리정돈을 잘하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풍속놀이는 그냥 놀거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많은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 야광귀

‘야광귀’란 ‘양팡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 빛을 내는 귀신을 말한다. 즉, 어두운 밤에도 잘 보는 귀신을 의미하는데, 설날 밤에 하늘에 있는 야광귀가 사람이 사는 세상에 내려와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사람이 사는 집에 들어가 신을 신어 보고 자신의 발에 맞으면 신고 간다고 한다.

이때 신을 야광귀에게 도둑맞은 사람은 그 해 일년 동안 운수가 나쁘다고 한다. 그래서 설날 밤이면 어른이나 아이들 모두가 신을 방에 들여 놓거나 다락에 넣어 놓고 잠을 청한다.

야광귀를 쫓기 위해서 밤이 되면 일찍 문을 잠그기도 하고 때로는 금줄을 쳐서 쫓기도 하며, 딱총을 놓아 큰소리로 내쫓기도 했다. 또한 야광귀를 막기 위해 ‘체’라는 것을 쓰기도 했는데, 체에는 구멍이 많기 때문에 야광귀가 체의 구멍을 보고 눈이 많은 것으로 알고 놀라 도망간다고 믿기 때문이다.

### 3. 유의사항

- ◎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색을 자기나름대로 규정했을 때 얼마나 서로 비슷한지를 알아보고, 각 지역마다 다른 세시풍속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생각한다.
- ◎ 농경문화 속에서 발달한 우리나라의 세시풍속은 농사짓는 일과 관련하여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한다.

### 4. 참 고

- 각 지역의 유명한 풍속



### ◎ 경기지역의 풍속

‘중화척’ : 중화절은 농사철이 시작되는 때를 가리키는데, 임금은 반죽(班竹)이나 나무로 만든 바늘 자보다 조금 짧은 자(中和尺)를 재상과 시종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는 농사일에 힘을 쓰라는 뜻으로 조선시대의 정조왕부터 시작되었다.

‘계방’ : 서울의 동쪽과 서쪽에 있는 얼음창고에서 2푼 이상과 규장각 관원에게 얼음을 탈 수 있는 패를 주어 얼음을 나누어 주었는데, 5월 1일부터 7월 말까지만 주었다.

‘탁축’ : 복더위를 피하기 위해 음식을 준비하여 시원한 물가나 산에 가서 냇물에 발을 담그며 피서하는 것을 말하는데, 남산과 북악산 계곡에서 많이 행해졌다.

‘납향제수’ : 경기도의 산간마을에 있는 군에서는 납형에 쏘 돼지를 공물로 바치는데, 군민을 풀어 멧돼지를 사냥하거나 왕이 직접 포수를 데리고 사냥하였다.

### ◎ 강원지역의 풍속

‘풍신제’ : 영등할머니는 바람신이기 때문에 농촌이나 어촌에서는 바람으로 인한 재해를 막기 위해 ‘바람 올린다’고 하며 고사를 지낸다. 영등할머니는 1일에 내려왔다가 보름날 올라가고, 데리고 온 수부는 20일날 올라간다고 한다.

‘영갈’ : 4월의 절기 중 소만 때 쫓이면 모심기를 시작하는데, 퇴비로 쓰기 위해 갈을 꺾는다. 이때 마구잡이로 갈을 꺾는 것을 막기 위해 동리의 장이 영을 내려야만 갈을 꺾을 수 있다.

‘오금비녀제’ : 오금비녀를 작은 상자에 잘 담아 동헌 동쪽 나무밑에 두었다가 매년 단오에 아전이 꺼내어 제사를 지내고, 다음날 도로 감추어 둔다. 이 오금비녀는 고려 태조 때 것이라고 한다.

‘거듭이’ : 9월에 콩, 팥, 조, 수수, 벼 등의 오곡을 거두어 들이는데, 추수하여 거두어 드리는 것을 ‘거듭이’라고 한다. 이 ‘거듭이’에는 낫과 솥돌이 필수품이며 이때 농부는 하루에 다섯번 식사를 한다.

### ◎ 충북지역의 풍속

‘벉고사’ : 어촌에는 1월 3일날 만선 때처럼 배에다 여러가지 기를

달고 선주가 정성껏 차린 음식을 장만하여 배 안에 상을 차리고 배 서낭을 제사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부들이 만선을 한다고 믿었다.

‘수리떡’: 단오날 쭈이나 취같이 짙은 초록색의 산나물을 떡가루에 섞어 수레바퀴모양의 둥근 떡을 만들어 차례를 지내고 먹기도 한다. 단오가 우리나라 말로 ‘수리’라고 하는 데에서 유래한 것이며 수리치떡이라고도 한다.

‘물고고사’: 유두날인 6월 15일날 물고에 가서 부침개를 부치면 눈에 벌레가 없어진다고 하여, 부침개를 들기름으로 부쳐서 나누어 먹는 것을 말한다.

‘원두제’: 원두막을 짓고 참외와 수박이 잘 되라고 기름적을 부쳐서 원두막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 ◎ 충남지역의 풍속

‘적선’: 정월 14일인 작은 보름의 밤에 당년의 신수가 나쁜 사람은 적선을 해야만 액을 면할 수 있다고 해서 개천의 다리를 개선하거나 유두들은 농는데, 이는 착한 일로 액을 면하고자 하려는 의도가 있다.

‘입춘점’: 입춘일에 오곡의 씨앗을 술에 넣고 볶아서, 맨 먼저 술 밖으로 튀어 나오는 곡식이 당년에 풍작이 된다고 한다.

‘별신제’: 별신제는 마을의 길함과 강복을 비는 것으로 정월 또는 2월에 거행한다. 온산 별신제의 경우가 그러한데, 제사에 드는 비용은 마을의 공동 재산과 기부금으로 충당하며 임원은 목록제제하고 부정을 금한다.

‘용경’: 동짓달이 되면 연못의 물이 어는데, 이 얼음의 모양이 마치 쟁기질을 해놓은 것처럼 된다. 이를 ‘용경’이라고 하며 남북으로 줄이 지면 다음해에 풍년이 들고, 동서로 지면 흉년, 동서남북으로 지면 평년작이 된다고 한다.

#### ◎ 전남지역의 풍속

‘털날보기’: 몸에 털이 있는 짐승 12종류 중에서 세수의 언제 드는가에 따라 농사를 점을 친다. 털 수 있으면 연초에 울수록 좋다고 한다. 상점에서는 털날을 가려 개점하며, 세수에 털이 있는 짐승날이 들면 목화가 잘 되기도 한다고 믿는다.

‘배 햇불놀이’ : 어촌에서 초파일 저녁에 현등하거나 햇불을 켜 복을 비는 행사를 치른다.

‘풍어빔기’ : 어촌에서는 6월 14일 저녁 바다에 용왕에게 술, 밥, 고기 등의 음식을 드리는 고사를 지내고 음식을 창호지에 싸서 바닷물에 가라 앉히는 행사를 개최한다.

‘강강술래’ : 정월 대보름과 추석날 달 밝은 밤에 마을의 처녀와 아낙들이 모여 둥근 원을 그리며 노래하고 춤추는 놀이이다. 임진왜란 때 유래했다고 하는데, 매김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제창하는 형식인 놀이이다.

#### ◎ 전북지역의 풍속

‘질산제’ : 정월 작은 보름날 밤에 길에서 하는 것으로, 짚을 십자로 묶고 떡과 밥 등을 길가에 가지고 나와 치성을 드리는 것이다. 일명 ‘거리제’, ‘거리산제’라고 부르며 산수박이를 하는 것이다.

‘까마귀밥’ : 정월 대보름날 아침에 까마귀 먹으라고 주는 밥을 ‘까마귀밥’이라고 부르는데, 대개 찰밥이나 약밥을 해서 갖다 던져 준다고 한다. 이때 나물도 함께 주는데, 어느 것을 먹느냐에 따라 그 해의 풍흉을 안다고 한다.

‘울개심니’ : 일명 ‘울이심니’라고 부르며, 햇곡식이 익으면 맨처음 생긴 나락을 쌀 한되 정도 되게 베어서 짚 채로 실에 매어 방문 앞에 사람이 닿지 않게 걸어 놓는 것을 말한다.

‘성주모시기’ : 추석 때쯤 되어서 햇곡식이 나오면 짚을 깔고 그 위에 떡, 미역국, 무수나물 등을 차려 성주를 모시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는 여자가 공손히 모셔놓고 제사를 지낸다.

#### ◎ 경북지역의 풍속

‘곡식날’ : 정월 8일에 오곡을 볶아 먹으면 곡식에 좀치지 않으며 떡을 해 먹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장치기’ : 장치기는 장으로 치는 것을 말하는데, 놀이기구는 장애와 장풍이 있으며, 장애로 장구멍 속에 있는 장풍을 파내어 상대방 쪽의 한계선 밖으로 쳐 내면 이기는 놀이이다.

‘단지갈기’ : 시월 말에 방안 선반 위에 모시는 조상단지의 곡식을 갈아 넣고, 장광 뒤에 모신 토주단지, 삼신봉지의 곡식을 가는데 떡

을 해놓고 곡식을 가득 채워 놓는다.

‘부엌이울음’ : 시월에 부엌이가 올면 이듬해에 풍년이 들고, 시월이 지나고 마을 북쪽 뒷산에 올면 마을에 초상이 나며, 남쪽 앞산에서 올면 먹을 것이 생긴다고 믿는다.

#### ◎ 경남지역의 풍속

‘유지방’ : 정월 보름날 높이 2발 가량의 팔뚝 굽기만한 장대 끝에 꼬단으로 깃봉 모양을 묶어 마당에 세우고 새끼를 늘어 놓는다. 이는 새끼줄 길이 만큼 벼 이삭이 길어지라는 뜻이다.

‘머리새와 장마’ : 봄에 머리새라는 풀잎의 뿌리에 붙은 부분이 맺히면 4, 5월에 장마가 돌고, 가운데 부분이 맺히면 6월에 장마가 들며, 끝이 맺히면 8월에 장마가 든다고 믿는다.

‘외제’ : 영산지방에서는 참외가 열릴 무렵이면 국수를 삶아 참외밭에 가서 참외 덩굴에 국수가락을 걸치면서 ‘외가 주렁주렁 내리소’라고 빈다. 수박밭에도 이러한 외례를 행하는데 이를 수박제라고 부른다.

‘울력조금’ : 9월 23일을 사양도에서는 ‘울력조금’이라고 해서 진장이 민간의 배에 돌을 싣고 와서 선창을 쌓게하는 부역을 시켰다고 한다.

#### ◎ 제주지역의 풍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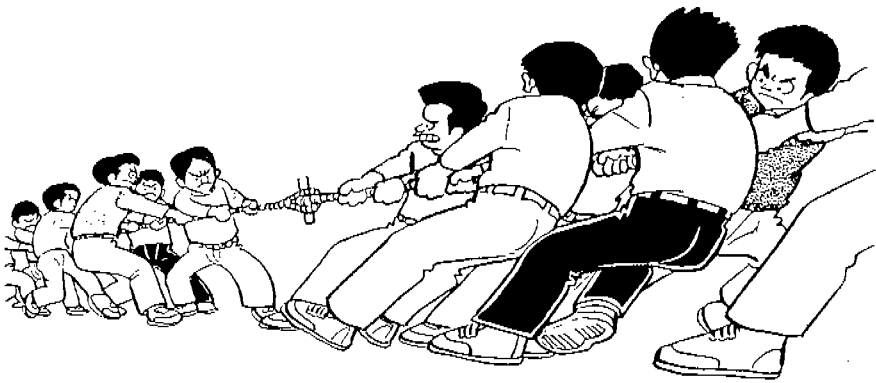
‘동곳’ : 동곳은 고드름을 말하는데, 2월에 추워서 물이 얼고 고드름이 달리면 그해에 풍년이 든다고 믿는다.

‘박씨심기’ : 2월에 흙을 파 밀거름을 해두고, 3월 삼짇날 박을 심으면 박이 잘된다고 믿는데, 이 박이 6월 20일에 까마귀 머리만한 크기가 되면 판판히 잘 여문다고 한다.

‘미역해경’ : 미역이 성장기에 있을 때 일정기간 채취를 금히고, 보통 3월 중순경에 해제하는데, 이를 미역해경이라 한다.

‘모멸갈기’ : 메밀은 다른 농사 파종이 다 끝난 후에 하는데, 전날 밤에 농부는 밭에 가서 자고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한다.

# 우리 풍속 지키기



영차 영차 줄을 당기자  
등 위에서의 꽃게싸움  
물위에 뜬 용알줍기



## 1. 활동과정

|                  |                                                                    |                                              |                                               |
|------------------|--------------------------------------------------------------------|----------------------------------------------|-----------------------------------------------|
| 개<br>요           |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풍속놀이를 직접 체험하여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정서를 다시 한번 느끼고 풍속놀이의 의미를 안다. |                                              |                                               |
| 활<br>동<br>과<br>정 | 세시풍속놀이 가운데 하나를 선정해 놀이기구 제작과정에 참여하고 실행함으로써 그 의미를 체험한다.              | 여성들이 주로 했던 놀이 가운데 하나를 실행해 보고 당시의 여성생활을 이해한다. | 자연 속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놀이를 통해 세시풍속이 가졌던 의미를 되새긴다. |

## 2. 활동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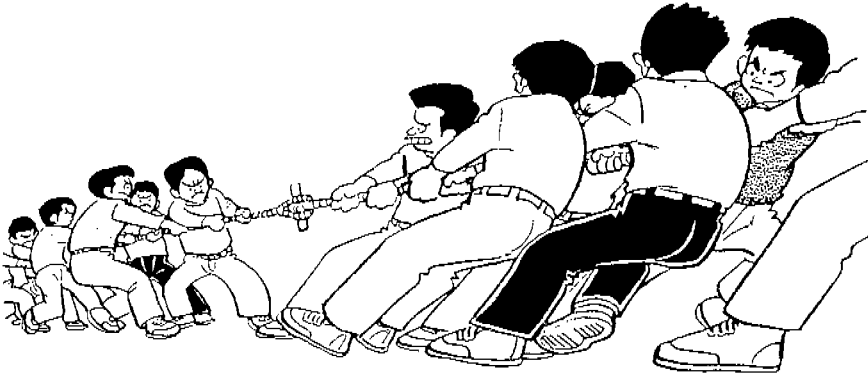
### 활 동 1 영차 영차 줄을 당기자

#### 활동내용

- ▷ 줄다리기의 기원과 의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 ▷ 각 모듬은 짚을 가지고 새끼줄을 꼰 후 새끼줄 3가닥으로 더 굵은 줄로 만들어 머리 부분은 둥글게 만들고, 둥근 부분에 다른 줄의 머리를 집어 넣은 다음 막대기를 넣어 고정한다.
- ▷ 두 모듬은 자기 줄을 잡고 진행자가 신호를 하면 잡아당기기 시작 한다. 줄이 끊어지거나 힘에 밀린 모듬이 진다.
- ▷ 풍속놀이를 한 후의 소감을 이야기 한 후 가까이에서 우리풍속을 즐길 만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생각한다.

#### 활동방법

\_\_\_\_\_ 역할연기 ☒ 구안법 ☒ 강의 ☒ 공개토론



## **풍통이의 도움활동**

‘줄다리기’하면 운동회에서 청군 백군으로 편을 갈라 힘차게 당기는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줄다리기는 어느 편의 힘이 더 센가를 가리는 것 보다는 풍년을 기원하는 공동체의식에 중점을 두고 전승되어 왔다고 합니다. 보통은 마을과 마을 대항으로 동부와 서부로 편을 나누어 겨루게 되는데, 줄다리기에 쓰이는 줄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놀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마을 사람들의 공동체 전체 이익을 추구하며 완전한 협동심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모두 이 놀이를 통하여 연대감과 향토애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학교의 홀수반과 짝수반으로 모둠을 나누어 줄다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힘이 가장 센 경준이가 우리모듬이어서 안심은 하였지만, 단지 줄을 많이 당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새끼줄을 구하는 것부터 문제가 됩니다. 새끼줄 대신에 구하기 쉬운 노끈으로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시장의 철물점을 다 찾아 새끼줄을 샀습니다. 먼저 보통 새끼줄을 여자의 긴머리를 따듯이 세가닥 줄꼬기를 하여 20미터짜리를 두개씩 만들었죠. 그리고 이 중 하나를 반으로 접어 10미터로 만들고, 나머지 하나로 접힌 가운데 부분에 둥그런 원처럼 생긴 고리가 생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감았습니다. 드디어 줄이 완성되고, 긴 줄을 들고 운동장의 한복판으로 나갔습니다. 두 모듬의 인원은 각각 10명씩, 우리모듬의 깃발은 파랑색으로 하였고, 상대방모듬은 하얀



깃발을 듭니다. 심판관의 신호와 함께 구령에 맞추어 줄을 당깁니다. 몇초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던 두꺼운 줄이 경준이의 괴성과 함께 우리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파랑색 깃발의 움직임이 점점 빨라집니다. 우리모듬의 일방적인 승리입니다.

## 도움자료

### □ 줄다리기

줄다리기는 옛날부터 남한 각 지방에서 성행해 오던 대중적 의의를 가진 특수한 놀이로서 대개는 정월 대보름날에 행한다. 작은 고을이나 마을에서는 당일 하루 하지만 큰 고을에서는 보통 대보름을 전후하여 3일 동안 한다. 지방에 따라서는 5월 5일 단오절이나 8월 15일 추석절에 행하기도 한다.

한 고을이나 촌락이 동과 서로 나누어 집집에서 모은 짚으로 새끼를 꼬아 수십가닥 합한 큰 줄을 한 가닥씩으로 하는데 줄에는 손잡이 줄을 무수히 매단다. 그리고 줄머리에는 양편 모두 ‘도래’라고 하는 고리를 만들어 연결시킨다. 중앙지점에서 동서부의 고리를 교접시켜 그 속에 큰 통나무를 꽂아 동서부의 줄을 연결시킨다. 고을 사람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총출동하여 줄을 당기어 승패를 다툰다. 줄에는 암숫이 있어, 동을 숫줄, 서를 암줄이라 있는데, 이긴 쪽은 농사가 풍작이 되고 병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하나 암줄이 이기는 것을 더 좋게 여기기도 한다. 그것은 줄다리가 다산을 상징하는 행위이기 때문인 듯하다.

자료 : 최상수, 1988.

## 활 동 2 등 위에서의 꽃게싸움

### 활동내용

- ▷ 돛다리 밟기의 유래에 대해 설명한다.
- ▷ 각 모듬에서 여자 대표, 즉 공주 한 사람과 시녀 두명을 뽑은

후 일렬 횡대로 서서 좌우향우하여 마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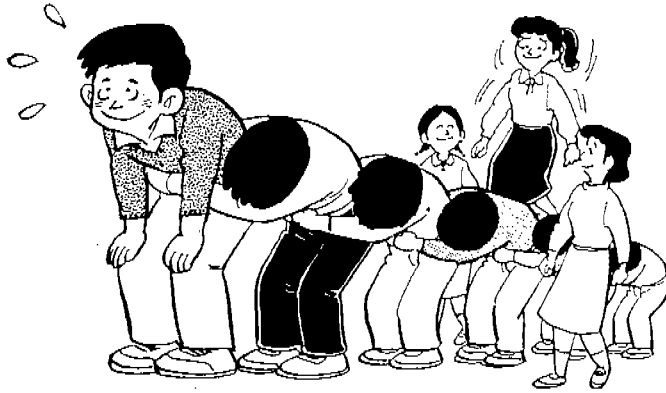
- ▷ 허리를 굽히고 앞사람의 허리를 두 손으로 잡은 다음, 머리는 앞사람의 궁둥이 왼편에 대어 마치 생선을 껴어 놓은 형태로 만든다. 각 모둠 맨 앞에 있는 두 사람은 상대방의 어깨를 서로 잡는다.
- ▷ 이렇게 구부린 사람의 등 위를 공주가 지나가면 시녀들이 부축한다. 양 모둠의 공주들은 자기 모둠 앞까지 나와 상대편을 쓰러뜨린다. 더 늦게까지 남아 있는 모둠이 이긴다.
- ▷ 뽕다리 밟기를 했던 당시 여성들은 어떤 느낌을 갖고 살았고, 이러한 놀이가 가졌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를 이야기한다.

#### 활동방법

시청각 ☒ 토론 ☒ 분임토의 ☒ 역할연기

#### 풍통이의 도움활동

뽕다리 밟기의 유래는 타고 다니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려 31대 공민왕 10년(1361년)에 홍건적의 난을 피하여 왕은 왕후 노국공주와 함께 안동에 내려왔어요. 왕과 왕후가 피난을 하는 것만도 백성으로서는 죄송한 일이었는데, 안동에 거의 와서는 소야전이라는 냇물을 건너게 됩니다. 이 때 안동의 부녀자들이 나아가 열을 지어 소야전에 사람의 등으로 다리를 놓아 왕과 왕후가 자기네 등을 밟고 건너가게 하는 충성심을 보였대요. 왕 일행은 경주까지 피난을 갈 예정이었으나 안동의 인심이 좋아서 여기에 머물렀고, 안동 사람들은 다시 불편하게 지내는 왕과 왕후, 공주들을 위안하기 위해서 뽕다리 놀이를 생각해내서 놀고 즐겼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옛날에 우리 백성들은 참 착했어요. 임금님이 피난가시는 것이 죄스럽고, 임금님 다리에 물 적시는 것이 못내 죄송해서 사람의 등으로 다리를 만들다니요! 부덕한 임금님일지라도 받드는 것이 옳다고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한 우리 백성의 마음은 어쨌거나 가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놀이가 좀 밋밋하잖아요? 그런데, 뽕다리를 만든 다음 각 모둠의 대표가 올라가 밀어뜨리기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꽃게 싸움’이래요. 꽃게란 아마 여자들이 하는 놀이라 붙여진



이름인가 봐요. 그런 마음을 되살려 우리도 한번 뚝다리를 만들어 볼까요? 우리 모듬끼리 일렬로 서서 상대방의 허리를 잡습니다. 허리를 구부려 앞사람의 왼쪽 엉덩이에 자기 머리를 갖다댑니다.

#### 도움자료

#### □ 뚝다리밟기

이 놀이는 대보름날 저녁에 경상북도 안동 지방에서 부녀자들이 하는 놀이이다. 뚝다리밟기를 ‘뚝다리놀이’ 또는 ‘기외밟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러 가지 놀이 중에는 동·서 두 패로 나누고 수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참가해야만 이루어지던 놀이로서 모두 남자의 힘이나 용기나 단결력의 내기를 주로 하는 것들인데, 이것은 부녀자들만의 집단적인 놀이이다. 그리고 이 놀이는 노래가 따르고 무용과 음악이 뒤섞여서 이루어지는 흥미있는 놀이이다. 그리고 동부와 서부로 패를 나누어서 거리를 누비다가 두 패가 서로 만나면 다투는 일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길을 비켜서 놀이를 해 나간다. 그러나 아무리 수가 많아도 이 놀이는 질서 정연하고 우아한 기풍을 보여준다. 젊은이, 늙은이도 가리지 않고, 양반, 상놈도 가리지 않으며, 모든 여성이 한데 모여서 즐기는 규모가 큰 향토 오락이다.

놋다리밟기는 맨 앞에는 ‘창립(創立)’이라고 부르는 5, 60대 넘는 할머니들이 선다. 창립의 자격은 여자가 성장해서 성혼하여 자손을 두었으며 복이 있어 갓출 것은 다 갓춘 부녀를 말한다. 창립 다음에는 ‘장년(壯年)’이라 해서 30대의 부인들이 뒤를 따른다. 장년 뒤에는 ‘놋다리의 역할을 하는 수십 명의 여자들이 모두 허리를 굽히고 뒷사람이 앞사람의 허리를 두 손으로 잡고 머리는 앞사람의 궁둥이 왼편에 대는데, 마치 생선을 꺾어 놓은 것 같다. 이 다리 위를 공주로 선발된 예쁜 소녀를 단장시켜 엮드린 등 위를 밟고 뒤로부터 앞으로 걷게 하는데, 이때 시녀 두 사람이 양쪽에서 손을 잡고 부축한다.

이렇게 구부린 사람의 등 위를 공주가 지나가면, 그 사람은 지나가자마자 곧 뛰어서 행렬 맨 앞에 가서 다시 구부리고 하여 다리는 그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안동의 ‘놋다리밟기’와 유사한 것으로 의성의 ‘기와밟기’가 있으니, 일명 ‘꽃게싸움’이라고도 한다. 이것도 대보름날 저녁에 부녀자들만이 하는 놀이로서 놋다리밟기와 대개 비슷하다. 다만 다른 것은 놀이에 앞서 여성으로 구성된 농악대가 마을을 한 바퀴 돌면 그것을 신호로 부녀자들이 행주치마를 벗어 놓고 행렬에 가담하며, 안동에서는 놀이만으로 끝나지만 의성에서는 승부를 낸다. 즉 등위에 올라선 공주적인 사람은 용감하고 기운이 센 사람이 도맡아 하게 되니, 마치 주장격이며 동서의 주장끼리 마지막에 가서 서로 싸워 상대방을 떨어뜨린다. 의성의 기와밟기는 안동의 다리밟기에 비하면 서민적이고 진취적이며 전투적이다. 놋다리밟기와 기와밟기는 초저녁에 시작하여 밤 늦도록 추운 줄도 모르고 행해진다.

### 활동 3 물위에 뜬 용알줍기

#### 활동내용

▷ 새벽에 가까운 약수터가 있는 산에서 두명씩 한모듬으로 만든

다음 갔다 와야 할 길이 표시된 지도를 한장씩 나눠 갖는다.

▷ 가는 도중 지도에 표시된 몇 군데에서 확인 도장을 받는다. 이 때 확인하는 사람은 담력을 키워 주기 위해 무서운 복장을 한다.

▷ 다녀와서 각자의 소감을 이야기 한다.

활동방법

           시청각   ✓   토론   ✓   구안법   ✓   현지답사



풍통이의  
도움활동

오랜만에 산에 오르니 참 기분이 좋습니다. 늘 푸른 나무가 있어 좋고, 앞쪽에 약수터가 있으니 더욱 좋군요. 대보름 꼭두새벽에 물을 길으러 가면 용알이 있다는 전설이 있다는데... 부인들은 정월 대보름날 첫 닭이 울 때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 오는데, 이 물을 '복을 주는 물'이라 하고 물 뜨는 것을 '용알을 떠온다'고 합니다. 이 때 남이 길어가기 전에 물을 길어야 하므로 14일 자정만 넘으면 동이를 들고 우물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오기 전에 물을 길어가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는군요. 정월 열나흘날인 작은 보름날 밤에 하늘에서 용이 내려와 우물에 알을 낳는데, 첫 번째 물을 길는 사람의 물에 용의 알이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용알을 가져간 집은 운수가 대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것도 다

훈련이더라구요. 이것은 대보름 15일부터 농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한 방편이니까요. 우리도 복받기 위해서 용알을 떠오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밤 12시라는 것입니다. 이 동네 우물은 찾기도 쉽지 않은가 봐요. 중간에 통과해야 되는 곳도 여러 곳이구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정말 깜깜하군요. 보름달이 이렇게 밝을 줄은 몰랐어요. 만약 달이 없었다면 어두워서 한걸음도 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야 풍통야! 저게 뭐야! 나무가 움직여!”라는 기수의 말에 깜짝놀라 쳐다보니, 정말로 나무가 저희들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나무에 다리가 달려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귀신이면 물러가고, 사람이면 껍 소리를 질러라!”라고 자신있게 소리치자. 그 귀신은 “껍!” 소리를 냈는데, 목소리가 흥선이지 않겠어요. 흥선에게도 장만 찍고 다음 과정으로 움직입니다. 정말 용알뜨는 길은 멀고 험하니까요!

## 도움자료

### □ 용알뜨기

‘부인들은 정월 보름날 첫 닭이 울 때면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온다. 이것을 ‘복(福)물’, ‘수복수(壽福水)’, ‘용(龍)알 떠오른다’고 한다. 남이 길어가기 전에 물을 길어야 하므로 14일 밤 열 두시만 넘으면 동이를 들고 우물 옆에서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이 오기 전에 물을 길는 극성파도 있다. 정월 열나흘날 밤에는 하늘에서 용이 내려와서 우물에 알을 낳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을 첫 번째 길는 사람의 물에 용의 알을 섞이어 돌아가기 때문에 용알을 건져간 집은 운수가 대통하고 풍년이 든다는 것이다.

이러니까 동네 부녀자들이 서로 먼저 용알을 뜨려고 시새워가며 서두는 풍속이 생겼다. 그러나 이것은 15일부터는 농사를 시작한다는 의식을 굳히기 위하여 새벽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던가 한다.

또 집안에 있는 우물이 좋지 아니하여 물 맛이 좋지 않고, 여름 가

물에 마른다든지 하면 그 마을에서 물 맛이 가장 좋고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우물에 가서 용알도 뜯 겸 해서 물을 훔쳐온다. 이때 물을 퍼서는 길에다 계속 흘리고 와야 하며 남은 물을 자기집 우물에 부으면 좋은 우물의 물줄기가 이쪽으로 뿜려서 물 맛도 좋고 가뭄에 마르지도 않는다고 한다.

### 3. 유의사항

- ◎ 세시풍속 중 한해를 맞으면서 했던 놀이를 살펴보면서 우리 선조들의 한 해 처음 마음가짐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 ◎ 풍속놀이 기구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우리 선조들의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고, 현재에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음을 느끼도록 한다.
- ◎ 여성들이 주로 즐겼던 놀이를 살펴보고, 그 당시의 여성과 지금의 여성의 생활 차이가 어떠했는지를 비교한 다음, 현대 여성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하도록 한다.

### 4. 참 고

#### □ 놀이의 의미

놀이는 왜 하는가? 공부하기도 바쁜 데 놀이를 해야 하는가? 공부가 놀이보다 중요한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그 대답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사람들이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추구하는 삶의 이상은 무엇인가? 행복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떤 것인가? 우선 자유로워야 한다. 무엇에 억눌리고 구속받아서 행복할 수

없고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심심하고 따분하면 행복할 수가 없다. 무엇인가 적극적인 재미가 있어야 한다. 근심걱정을 잊어버리고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즐거움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 그러나 재미만 있고 성취감이 없으면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없고 허무감에 빠지기 쉽다.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며 신바람나게 몰두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면 그 순간은 참으로 행복하다 하겠다. 이것이 바로 놀이이다. 올바른 놀이는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최선의 삶의 양식이 행복이라면 놀이는 그러한 삶의 양식이다. 공부가 이러한 양식을 갖게 된다면 공부도 놀이가 될 것이며 적극적인 재미를 줄 수 있다. 하지만 공부가 놀이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진정한 행복의 양식을 갖고 있는 놀이는 다른 방향에서 찾아야 한다.

일과 놀이의 관계는 마치 빛과 그림자의 관계와 같다. 빛이 있어야 그림자도 있고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진하다. 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다가 빛이 사라지면 그림자도 사라진다. 일과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자연히 놀이의 즐거움도 증폭된다.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놀이가 허무하듯이 공부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놀이가 놀이 다울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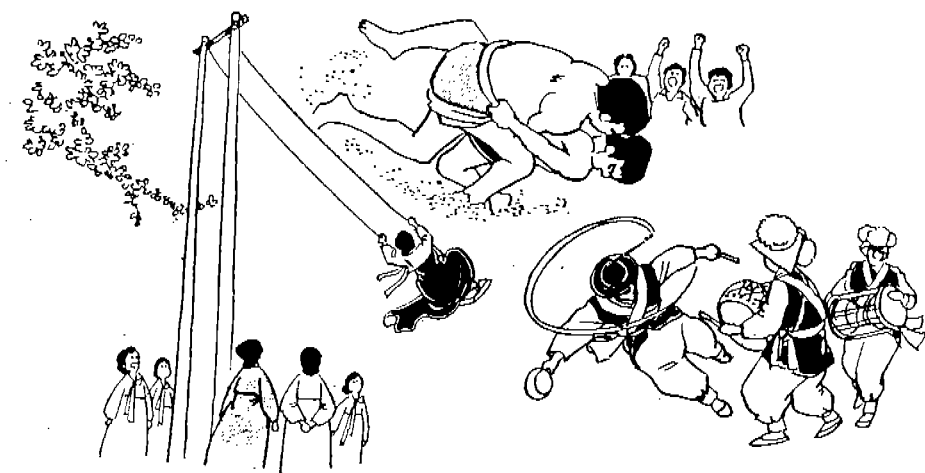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일과 놀이의 관계를 잘 알았던 까닭에 일을 놀이로 바꾸는 슬기를 발휘했다. 힘든 일을 개별적으로 하면 능률도 오르지 않고 몸도 더 고단하므로 여러 사람들이 더불어 일하는 조직으로 두레를 결성하였다. 두레 노동에는 자연히 놀이가 따르게 되므로 두레꾼들은 함께 모여서 풍물을 치고 풍물가락에 맞추어 춤을 추면서 일터로 나간다. 누구든지 일을 하러 나갈 때 가장 어설픈데 이런 어설픈품을 풍물의 신명으로 잊곤 했던 것이다.

우리 선조의 이런 지혜를 우리 청소년들도 배울 필요가 있다. 전통놀이를 자신과 별개의 것으로 느껴 무시하거나, 있는 그대로 답습하려는 것보다는 자신의 형태로 전환하여 자기의 목소리로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럴 때만이 전통놀이의 진정한 계승과 재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자료 : 임재해, 1993.



# 우리 풍속 새모습 찾기



잊혀진 풍속찾기  
향토축제 찾아가기  
환경굿 드리기



## 1. 활동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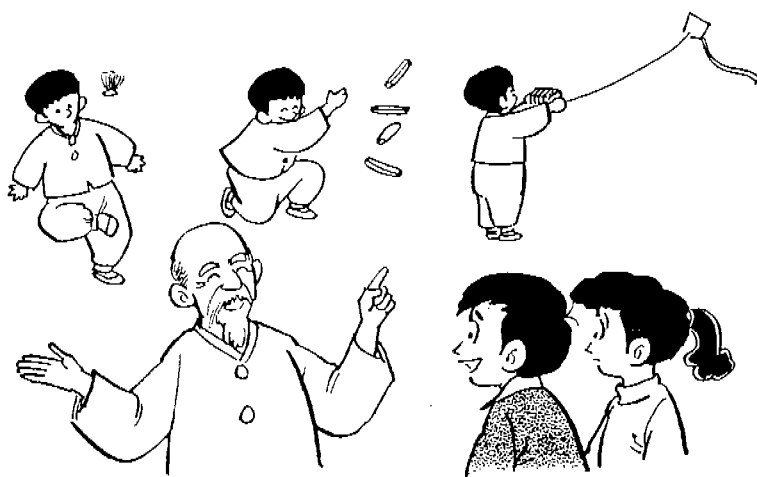
|      |                                                                         |                                        |                                                   |
|------|-------------------------------------------------------------------------|----------------------------------------|---------------------------------------------------|
| 개요   | 현재 우리에게 남아 있는 풍속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직접 찾아보고, 미래에는 우리 풍속이 어떻게 발전해야 할 것인지를 모색한다. |                                        |                                                   |
| 활동과정 | 가까운 곳에 사시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찾아가 그분들이 체험한 풍속놀이를 조사한다.                          | 지역마다 열리는 유명한 향토축제를 찾아가 그 지방의 풍속을 체험한다. | 세시풍속을 현대나 미래의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실행한다. |

## 2. 활동내용

### 활동 1 잊혀진 풍속찾기

- 활동내용**
- ▷ 모둠별로 원하는 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의 경로당, 마을회관, 노인정 등을 찾아간다.
  - ▷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경험하셨던 세시풍속의 시기, 장소, 그리고 인상깊었던 일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고, 그동안 조사자들이 알지 못했던 풍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유의하여 조사한다.
  - ▷ 모두 모여 새롭게 알게 된 세시풍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토론한다.

**활동방법**                 워크샷 ☒      토론 ☒      구안법 ☒      현지답사 ☐



## 풍통이의 도움활동

아마 저도 언젠가는 늙을 때가 오겠지요? 그 때 내 손자 정도 되는 청소년들은 무슨 생각,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저도 벌써 강산이 두번 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온 걸 보면, 나이가 드는 것도 그렇게 멀리만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풍속도 알고 보면,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만들고, 즐겨 사용하신 것들이겠고, 제가 하는 있는 이런 놀이도 다 우리 풍속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경로당을 찾아가서 내가 알지 못하는 풍속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자는 거예요. 저희 집 주변에 경로당이 하나 있는데요. 그 분들도 젊은 시절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기수와 함께 경로당까지 갔지만 막상 문 앞에 서니, 들어가기가 서먹서먹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장기를 두시거나 바둑을 두시는 분들끼리 모여 계셨습니다. 약간은 의아해하시는 분들께 저희들이 찾아온 이유를 설명드리자, 할아버지는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놓으시면서... 비록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알고보니 할아버지가 하신 놀이를 지금 제가 하는 것도 많았어요. 또 할아버지 말씀을 들었더니 할아버지와 제가 별로 다르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전통이란게 바로 이런

것인가 봅니다. 더구나 우리의 전통적인 풍속놀이도 배우고, 외롭게 지내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께도 즐거운 시간을 선사하니 더욱 기분이 좋습니다.

## 활동 2 향토축제 찾아가기

### 활동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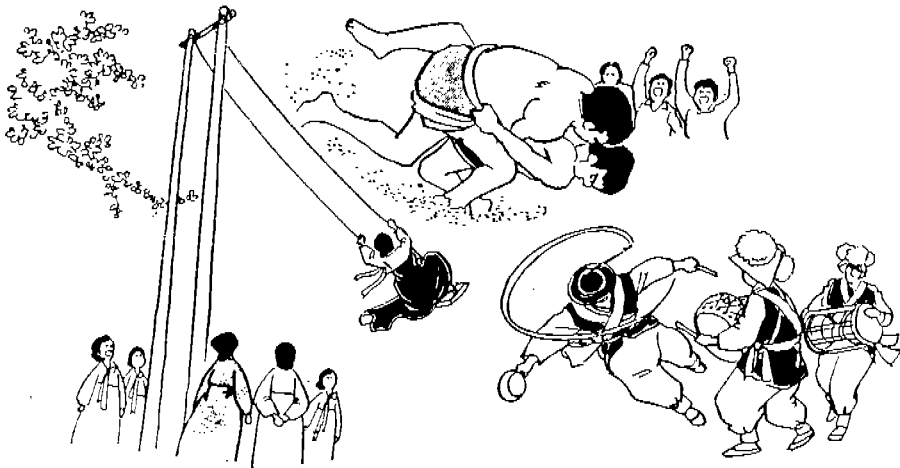
▷ 음력 5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동안 강릉에서 진행되는 단오제에 참가한다.

### 활동방법

☒ 시청각 ☐ 토론 ☐ 분임토의 ☒ 현지답사

### 풍통이의 도움활동

오늘은 지방마다 축제가 열리는 놀이마당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공연장 옆에는 옛날 보던 서커스도 있고, 한 쪽에는 먹거리, 놀거리들이 준비하게 서 있어요. 어때요? 한 번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축제현장에 남아 있는 우리의 풍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공부가 될 거예요. 강릉 단오제 구경을 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 일별 시간 계획표

|    | 4월 15일 | 5월 3일                                                  | 5월 4일                                                  | 5월 5일 | 5월 6일 | 5월 7일 |
|----|--------|--------------------------------------------------------|--------------------------------------------------------|-------|-------|-------|
| 9  |        | 4-7일:시 조 경 창 대 회 (오후 6시 까지)<br>3-7일:서예전, 수석전(오후 6시 까지) |                                                        |       |       |       |
| 10 | 대관령산신제 |                                                        | 조 전 제                                                  |       |       |       |
| 11 |        |                                                        | 무 격 굿(오후 8시 까지)                                        |       |       |       |
| 12 |        |                                                        | 5, 6일 :그네대회(오후 6시까지)<br>농악경연(오후 6시까지)<br>씨름대회(오후 5시까지) |       |       |       |
| 1  |        |                                                        | 관 노 가 면 극                                              |       |       |       |
| 2  | 성산봉황제  |                                                        | 민요경창대회<br>토속요발표회                                       |       | 학술발표회 |       |
| 3  |        |                                                        |                                                        |       |       |       |
| 4  |        |                                                        |                                                        |       |       |       |
| 5  | 봉안제    |                                                        |                                                        |       |       |       |
| 6  |        |                                                        |                                                        |       |       |       |
| 7  |        | 영신제                                                    | 관 노 가 면 극(3-7)                                         |       |       | 송 신 제 |
| 8  |        |                                                        | 대 관 령 푸 너 리                                            |       |       |       |
| 9  |        | 불꽃놀이                                                   |                                                        |       |       |       |

#### 도움자료

#### ☐ 강릉단오제

강릉지방의 세시풍속으로 단오날에 대관령의 서낭신을 모셔다가 제사하고 인근 사람들이 함께 모여 놀이를 벌인다. 강릉은 동해안에서 제일 큰 도시로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단오제 때에는 수만 명이 모여들어 떠들썩한 축제 분위기를 이룬다. 단오제에서 모시는 서낭신은 임진왜란 때 왜군을 물리친 범인대사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옛날 강릉에 어떤 처녀가 해가 뜬 바가지 물을 마시고 아이를 낳았다.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아비 없는 자식을 낳았다며 매우 꾸짖었다. 산모는 그 아이를 뒷산 학바위 밑에 버렸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산모가 이튿날 아침 그곳에 가 보았더니 죽은 줄 믿었던

아이는 뜻밖에 살아 있었고, 새들이 날아와 깃으로 덮어주고, 짐승들은 젖을 먹이고 있었다. 아이는 다시 집으로 옮겨졌다. 차차 자라나면서 열심히 공부하여 이름을 나라에 떨치고 나중에는 국사에 이르게 되었다. 범일대사는 죽은 후 대관령의 서낭신이 되었다고 전한다. 단오제에서는 또 범일대사의 부인인 여서낭신을 제사한다. 간단히 생각하면 단오제는 단오날에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축제이며 그 준비과정, 규모 등은 실로 대단하다. 3월 20일 신주(神酒)를 담그는 일로부터 5월 6일 소제(掃除)에 이르기까지 근 50여일에 걸친 축제이다. 3월 20일에 제사용의 술을 빙고, 4월 1일에 서낭신에게 신주와 시주를 올리고 삼헌(초헌관은 강릉시장, 아헌관은 명주군수, 종헌관은 강릉경찰서장이 맡는다)이 있은 후, 무당들의 굿이 있다. 4월 8일에는 대서낭사에서 무당들의 굿이 모셔진다. 4월 14일 저녁에는 대관령국사 서낭신을 모시기 위해 떠난다. 16명의 악사와 관헌들과 함께 남녀무당 약 60여명이 행진을 하는데 옛날에는 모두 말을 탔다.

4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매일 새벽 관원(官員)과 무당들은 서낭신에게 문안을 드리고 기원한다. 4월 27일에는 큰 굿을 한다.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오제가 시작된다. 무당들의 굿과 가면놀이가 당집 앞에서 벌어진다. 이때 팻대(花蓋)를 만든다. 대나무를 직경 6자 정도로 둥글게 엮고 나무껍질을 감아 무겁고 통통하게 한다. 차바퀴처럼 둥근 복판에 +자형의 교차된 나무를 대고 교차점에 30자쯤 되는 간목을 세우고, 둥근 주위에 철줄을 달아 무겁게 한다.(약 4~50관) 여기에 20자쯤되는 오색의 천을 늘어뜨리고 간목도 오색으로 감아 아름답게 한다. 마치 차바퀴를 올려놓은 것 같다. 이 팻대를 메고 시가행진을 한다. 5월 5일은 축제가 절정에 이른다. 가면놀이·씨름·그네·체육대회 등이 이루어지고 팻대를 앞세우고 출발한 행렬을 대서낭사에서 약국서낭, 소서낭을 거쳐 시내를 돌면서, 곳곳에서 여러 차례 굿을 한다. 저녁에 팻대는 여서낭사에, 신간은 대성황사에 봉안된다. 5월 6일에는 대성황사 뒷골에서 소제(燒祭)가 진행된다. 단오제를 위하여 만든 신간, 팻대를 비롯하여 사용하던 것을 불태운다. 강릉단오제는 종교적 성격, 오락적 성격,

사회비판적 성격 등을 함께 지니고 있는 매우 주목되는 민속놀이의 하나이다. 엄격한 금기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제사의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환락과 웃음과 야유가 즐겁게 어울리는 현장성 짙은 놀이이다. 1966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었다.

### 활 동 3    환경굿 드리기

#### 활동내용

- ▷ 우리 선조들에게 있어서 물은 어떤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고, 당시 가장 큰 환경문제는 무엇이었을까를 모둠별로 이야기 한다.
- ▷ 현대에 와서 물은 어떤 중요성이 있으며, 물을 비롯한 환경에 관한 문제는 어떤 것이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를 이야기한다.
- ▷ 이러한 내용을 하늘님께 드리는 제문으로 적고, 각자 소망하는 내용을 종이에 한 문장 정도의 짧은 문장으로 적는다.
- ▷ 모둠별로 떡·과일 등 제사상을 차린 다음 환경에 관한 굿을 한다.
- ▷ 제문을 다 읽고나면 각자 적은 종이를 차례로 읽고, 제사상에 올려놓고 한판 신나게 춤을 춘다.

#### 활동방법

       ☒ 게시 및 전시        ☒ 토론        ☒ 구안법               현지답사

#### 풍통이의 도움활동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환경문제예요. 물론 제가 환경 캠페인하러 나온 사람은 아니지만 만약 우리가 숨쉴 공기가 없고, 마실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먹고 있는 물만해도 그래요. 한강에 온갖 더러운 폐수가 다 들어가서 물고기도 살수가 없는데 물은 지금 당장 마셔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 물을 마실 수 없게 되면, 다시 복구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물론 문제를 고치





고 해결하려는 행동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살리기 위한 국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한강변의 고수부지로 정했죠. 그곳에서 서울의 젓줄기인 한강의 환경오염도 보고, 시원한 강바람도 쐬기 위해서죠. 준비한 과일상자를 놓고, 그 위에 음식을 펼친 다음에 제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는 기수가 맡았죠. “유세차 모던 모일 기수를 비롯한 친구들이 우리나라의 환경오염을 걱정하여 이 제사를 올립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장 친근한 벗인 환경이 이런저런 잔병을 앓느라 우리의 곁을 점점 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수가 쓴 제문은 뒤에 서 있던 친구들의 가슴을 울리게 했고, 지나가던 행인들도 저희들의 이상한 행동을 궁금하게 여겨 가까이 다가와 구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문낭독이 끝나고 한명씩 자신의 소원을 비는 장면에서는 홍선이가 “화장실을 자주 가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소원이 낭송되자, 엄숙한 표정을 하고 있던 친구들과 구경꾼들이 한바탕 웃음잔치를 벌였습니다. 구경꾼들 중에는 우리들의 행동이 가륙하신지 천원짜리 지폐를 제사상에 올려 놓고 절을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환경을 생각하고, 준비한 공으로 농구도 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일석삼조라고들 한다죠?

### 3. 유의사항

- ◎ 우리 세시풍속이 과거의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 전해 내려오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임을 깨닫도록 한다.
- ◎ 가까이 있는 우리 풍속 중에서 알려지지 않은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봄으로써 주변에 있는 풍속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관심을 갖도록 한다.
- ◎ 세시풍속이 생긴 배경과 그 역할을 생각해 보고,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 그리고 나 자신의 문제와 연결하여 생각해 보도록 한다.

### 4. 참 고

#### □ 세시풍속의 현재와 미래

오랜 전통이 있는 세시풍속이 교육의 보급, 서구문물의 도입, 과학 사상에 의해서 현대인들의 생활의식과 생활양식은 나날이 달라져 가고 있다. 생산양식도 농경에서 도시산업으로 전이되고 있으며, 가옥구조도 식사도 복장도 변천하고 있어서 종래의 관습의 보존보다 외래적인 것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세시풍속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게 되었다. 우리의 오랜 명절인 설은 소홀히 다루어지면서 크리스마스, 불탄일은 공휴일로 제정되어 숭상되고 있으며 세시풍속의 기풍이나 기도는 미신이란 낙인이 찍혀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의 세시풍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현대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다. 현대란 같은 시간성속에서 한국이란

공간성과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세시풍속을 논할 때에 이 양자는 부합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상반된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 시대의 대세에 따라 생활과 그 의식이 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문명의 이기를 생활에 이용해서 후생하는 교통수단, 전기도구, 플라스틱 등은 이미 일상화하였고 장차 더 많은 활용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기들은 우리의 노동력을 덜어주었고 따라서 편하게 살 수 있게 만들고 있다. 거부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런데 문명 속에서 인간은 점점 새로운 모순에 봉착하게 되었다. 물질의 이용에 치중하고 보니 정신적 결함이 노출되었다. 즉, 생명을 경시하고 이기적이고 잔인하고 흉악범이 많아서 사람들은 오히려 불안에 떨게 되었다. 인간의 궁극적인 소망은 행복인데 오히려 평화와 행복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불안의 요소가 더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생활과 의식이 급격하게 서구화함에 따라 사회범죄는 늘어나고, 교육수준은 높아졌는데 청소년문제는 더 크게 부각되어 과격하고 잔인해지고 있다. 왜 그러는 것일까?

태초에 있어 인간의 적은 자연이었다. 홍수, 한발, 화재, 맹수는 무엇보다도 무서운 존재였다. 그러나 문명시대에 있어서의 인간의 적은 자연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이 되었다. 사람이 사람에게서 피해를 입게되고 따라서 인간이 인간을 적으로 삼아 싸워야 하는 비극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불행한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대책과 새로운 생활의식과 새로운 생활양식을 요구하고 있다.

인류가 불행을 막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시풍속에서 많은 교훈을 찾아야 한다. 세시풍속은 하루이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생활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결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진리가 들어있다. 인류의 지혜, 민족의 지혜가 현명하게 엮이어 세시풍속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그 자연, 그 역사, 그 사회 속에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현명하고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판단되어 관습으로 정착되었기에 우리는 세시풍속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속에서 교훈을 찾아내야 한다.

세시풍속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 모든 세시풍속을 재연할 수는 없다. 의미를 상실한 것도 공감을 잃은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것은 도태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과거의 것일지라도 현대에 있어서도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가 궁극에 노리는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 장점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이다. 세시풍속에 나타난 숭신성·협동성·예술성은 계속되고 강조되어 현대의 결함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세시풍속의 진정한 의미를 되살려 우리의 현재 더 나아가 미래에 적용시킬 때 우리사회의 진정한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료 : 임동권, 1989.

## 참고 문헌

- 장무학(1990), 한국세시풍속기, 집문당.  
김광언(1994), 김광언의 민속지, 조선일보사.  
김성원(1987), 한국의 세시풍속, 명문당.  
민속학회(편)(1990), 가면극·세시풍속·산육속, 교문사.  
사회과학원 민속연구실(1992), 조선민족풍습, 서광학술자료사.  
안중선(1994), 천기누설, 고려문화사.  
이강로(1988), 세시풍속과 민속놀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임동권(1989), 한국세시풍속연구, 집문당.  
정구창(1992), 우리나라의 세시풍속, 교학사.  
정은주(1993), “향토축제와 ‘전통’의 현대적 의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리나(1990), “전통의 현대적 수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0.  
최상수(1988), 한국민속문화의 연구, 성문각.  
한국문화예술진흥원(1987), 한국의 축제.  
최상수(1988), 한국민속놀이의 연구, 성문각.  
한국청소년개발원(1993), 민속놀이 교실활동,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1993), 신바람나는 민속놀이,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연구원(1992), 명절쇠기 활동, 한국청소년연구원.  
홍일식(1993), 21세기와 한국전통문화, 현대문학.

## 시청각자료

- 「놀이문화」 (MBC / 1988. 9. 19 / 대표적인 전통놀이 소개)
- 「다큐멘터리, 진도 (2)신명」 (KBS / 1989. 10. 6 / 한국인 특유의 집단신명 소개)
- 「떡과 한과」 (국립영화제작소 / 1993 / 한국의 떡과 한과 소개)
- 「멋과 실용의 지혜」 (MBC / 1987. 5. 15 / 한복의 특징 및 변

천사)

- 「민속신앙」 (MBC / 1988. 10. 19 / 민속신앙의 형태와 종류 소개)
- 「밀양백중놀이 외 1편」 (문화재관리국 / 1993 / 밀양백중놀이, 은을 탈춤 소개)
- 「뿌리의 기록 - 족보」 (MBC / 1987. 10. 5 / 족보의 세계 분석)
- 「상부상조의 정신 - 춘계」 (KBS / 1989. 6. 18 / 춘계 소개)
- 「선비정신과 예가 깃든 다도」 (MBC / 1988. 1. 26 / 우리고유의 차문화 소개)
- 「생활 신앙의 모체 - 무속」 (MBC / 1987. 5. 22 / 생활신앙으로서의 무속 분석)
- 「수춘향약」 (MBC / 1993. 2. 6 / 수춘리에 남아 있는 향약실태)
- 「여름의 전통생활」 (KBS / 1989. 7. 30 / 여름의 전통생활 소개)
- 「연」 (KBS / 1993. 1. 24 / 연의 현주소 재조명)
- 「연만들기 - 노유상」 (MBC / 1992. 2. 2 / 노유상옹의 연만들기 인생)
- 「영산민속놀이 외 3편」 (문화재관리국 / 1993 / 영산민속놀이 등 소개)
- 「영산민속놀이」 (KBS / 1993. 5. 18 / 영산민속놀이 형태 탐방)
- 「음양오행과 풍수지리」 (MBC / 1987. 10. 20 / 음양오행과 풍수지리의 근원 분석)
- 「장승」 (KBS / 1993. 2. 28 / 장승 재조명)
- 「장승」 (국립영화제작소 / 1989 / 장승의 전래모습 소개)
- 「전통문화를 찾아서 - 동계」 (교육방송국 / 1992-1993 / 동계 소개)
- 「전통문화를 찾아서 - 역술」 (교육방송국 / 1992-1993 / 역술 소개)

- 「전통문화를 찾아서 - 영산 줄다리기」 (교육방송국 / 1992-1993 / 영산 줄다리기 소개)
- 「전통문화를 찾아서 - 한국의 연」 (교육방송국 / 1992-1993 / 연 소개)
- 「전통문화를 찾아서 - 전통놀이」 (교육방송국 / 1992-1993 / 전통놀이 소개)
- 「전통문화를 찾아서 - 한국의 부적」 (교육방송국 / 1992-1993 / 한국의 부적 소개)
- 「전통문화를 찾아서 - 점술」 (교육방송국 / 1992-1993 / 점술 소개)
- 「전통문화를 찾아서 - 역학」 (교육방송국 / 1992-1993 / 역학 소개)
- 「전통문화를 찾아서 - 한과」 (교육방송국 / 1992-1993 / 한과 소개)
- 「전통문화를 찾아서 - 마을 지킴이」 (교육방송국 / 1992-1993 / 마을 지킴이 소개)
- 「전통문화를 찾아서 - 남성복식」 (교육방송국 / 1992-1993 / 전통 남성복식 소개)
- 「전통문화를 찾아서 - 갯」 (교육방송국 / 1992-1993 / 갯 소개)
- 「전통문화를 찾아서 - 풍수지리」 (교육방송국 / 1992-1993 / 풍수지리 소개)
- 「전통문화를 찾아서 - 이름」 (교육방송국 / 1992-1993 / 우리나라 이름 유래 소개)
- 「전통 성년식 관계」 (KBS / 1989. 5. 14 / 전통 성년식 소개)
- 「풍년 장승제 소라실 사람들과 - 박영혁」 (MBC / 1992. 2. 23 / 장승제 풍속)
- 「한국의 시제」 (국립영화제작소 / 1992 / 전통 세시풍속 소개)
- 「한국의 예」 (MBC / 1992. 9. 10 / 청학동 청년의 삶 소개)
- 「한국의 장승」 (MBC / 1986. 2. 22 / 장승의 분포와 유래 기능으로 한국의 정신 소개)

- 「해, 달의 운행록, 달력」 (KBS / 1985. 1. 27 / 양력 및 음력 소개)
- 「홍파 멋의 한마당 - 대동놀이」 (KBS / 1988. 5. 15 / 대동놀이 소개)